

리아호나

우리의 손에서 여러분의
손으로, 38쪽

아이어링 회장과

우호트도르프 회장을 만나다, 6, 14쪽

교회까지 걷어가는 40킬로미터, 22쪽

하나님은 국가를 인도할 수 있으며,
그분은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30쪽

아홉 살배기 선교사, 친12쪽





여러분은 리아호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잡지를 볼 때 누가 이 기사들을 한데 모으는지, 그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 출판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출판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말해 주는, 교회 잡지에 대한 기사를 읽어 보십시오. 38페이지의 “교회 잡지 만들기”를 보십시오.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임

제일화장단: 토마스 에스 문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심사도 정회원: 번드 케이 페커, 엘 톨 페리,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섬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도 크리스토퍼슨

편집인: 제이 이 잰스

고문: 게리 제이 코울먼, 요시히코 기무찌, 제럴드 앤 렌드, 더블류 더글라스 셉웨어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쉬네히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중동 편집인: 라이언 카, 아담 시 울슨

보조 편집인: 수잔 배넷

편집 스태프: 크리스티 반즈, 린다 스탈 쿠버,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리렌 포트 콘트,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멜리사 매릴, 마이클 알 모리스,

셀리 제이 오데커, 주디스 엠 팔러, 조슈아 제이 퍼키, 켈리 핀보로우,

리처드 엠 롬니, 돈 엘 설,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털

선임 비서: 로벨 듀서

관리 미술 책임자: 엘 고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트 뱌 캄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갤리 알 아로요, 클레트 네베커 오온,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자널드 제이 크리스티안슨, 캐슬린

하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커비, 스킵트 엠 무이, 지니 제이 넬슨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치워크

배부 책임자: 랜디 제이 벤슨

통 관: 제 508호, 제 45권, 제 7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8년 7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 윤 환

편집인: 박 승 호

번역 책임자: 박 환 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는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 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 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 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 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자부호 변경된 주소를 배부패(☎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첨판 혹은 지사기를 뜻하는 물론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리투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리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킵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하이티어, 헝가리어, 힌디어(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08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July 2008 Vol. 32 No. 7.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6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음**



14 **가정적인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 예민된 사람**

성인

- 2 제일화장단 메시지: 선지자의 음성에서 귀 기울임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6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음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 14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가정적인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 예민된 사람
러셀 엠 넬슨 장로
- 22 그의 발걸음에 있는 신앙, 그의 마음에 있는 노래
다이어드레 엠 폴슨
- 25 방문 교육 메시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 38 교회 잡지 제작
- 44 후기 성도의 소리
드라이버를 든 사마리아인 하이다 바틀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풀 비 해치
소년의 두 렙든 나탈리 로스
예수님께서 정말로 아메리카 대륙을 방문하셨을까?
카를로스 르네 로메로

48 **애독자 편지**



38 **교회 잡지 제작**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이 제언들은 가정에서만뿐만 아니라 교회 공과반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레시피,” 26쪽: 룬달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든 재료가 된 요소들을 찾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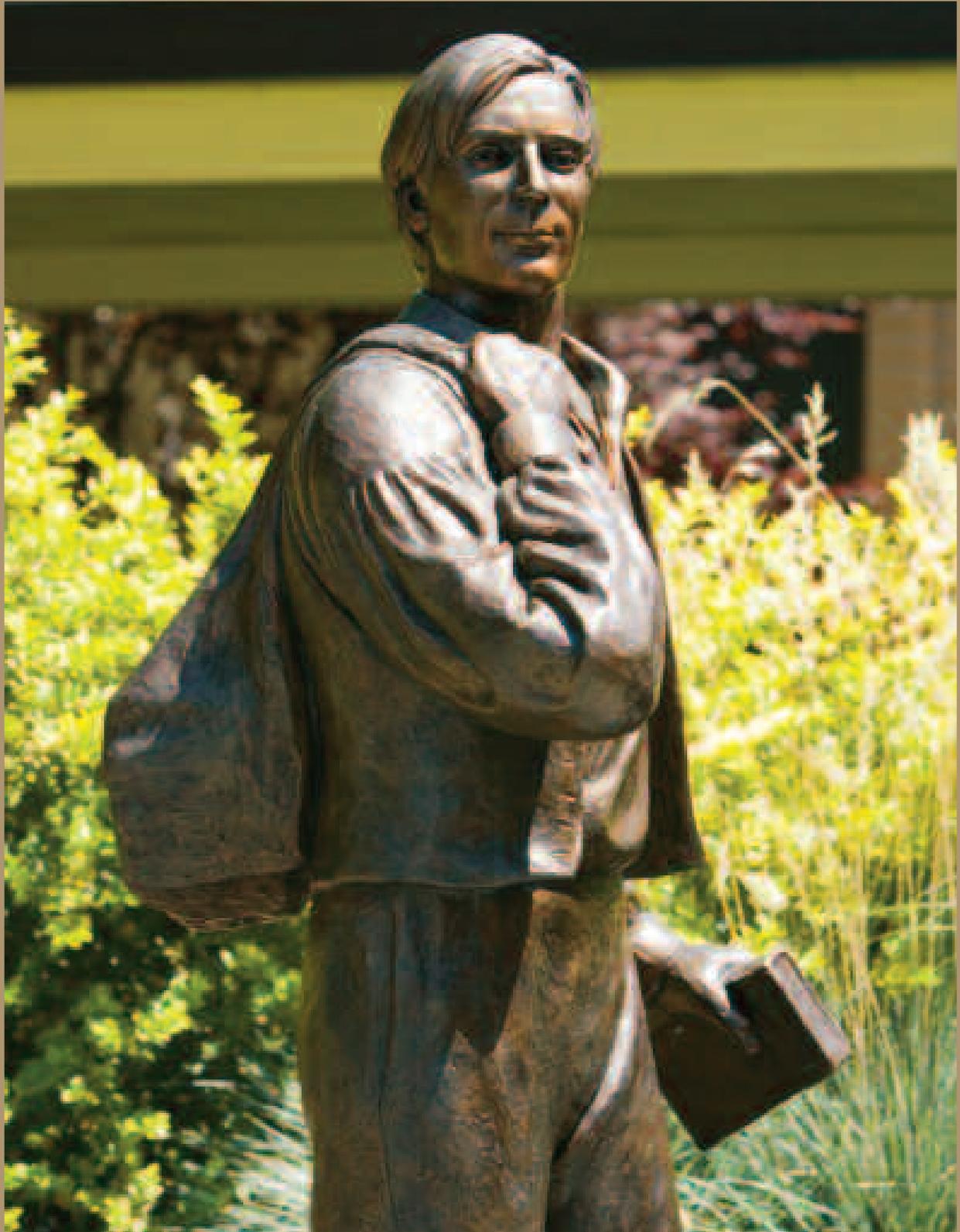
가정의 밤 전에 특별한 식사를 함께 하도록 준비해 본다. 함께 식사를 준비하면서, 각 음식 재료들이 어떻게 훌륭한 식사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지를 토론한다. 마찬가지로 각 가족 구성원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를 이야기한다.

그 기사를 읽는다. 룬달의 예를 들면서 가족들에게 가정의 밤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묻는다. 다음 주 가정의 밤에 대한 임무 지명을 한다. 여러분은 “앞 못보는 지휘자” 게임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28쪽 참조)

“하나님의 인도하는 손길,” 30쪽:

기도에 관한 폴 장로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한다. “삶을 인도함” 부분에 나와 있는 그의 약속들을 큰 소리로 읽는다. 앨마서 34장 18~26절을 읽고 앰올레크가 조람인들에게 기도에 관해 가르친





새뮤얼 에이치 스미스의 동상, 디 제이 브와든

조셉 스미스와 하이럼 스미스의 충실한 동생이었던 새뮤얼 에이치 스미스는 가장 먼저 선교 사업을 나간 교회 선교사들 중 한 사람이었다. 1830년 봄부터 1833년 12월까지 새뮤얼은 6,400킬로미터 이상을 걸으며 그의 배낭에 들어 있던 물문경을 전했다. 2008년 3월 13일은 새뮤얼의 탄생 20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30 하나님의 인도하는 손길



26 행복한 가정을 위한 레시피



친12 나랑 같이 초등학교 갈래?

친8 나만의 손수레 만들기



청소년

- 26 행복한 가정을 위한 레시피 폴 반덴버그
- 30 하나님의 인도하는 손길 볼프강 에이치 폴 장로
- 34 지금이 바로 그때다 제네사 클라워드

표지

사진 삽화: 존 루크

친구들 표지

스위트위틀을 건너며, 데이빗 코치, 박사 금지

어린이: 친구들

- 친2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복음이 주는 선물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난 지금 선교사 될 수 있네 린다 크리스텐슨
- 친6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오하이오 주로 이주하는 조셉
- 친8 나만의 손수레 만들기
- 친10 친구가 친구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폴 케이 시브로스키 장로
- 친12 나랑 같이 초등학교 갈래? 레니 하딩
- 친15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함: 가족 금식 레지나 모레이라 몬테이로
- 친16 색칠하기

이번 호에 숨겨진 인도네시아어 정의반 반지를 찾으면서 복음을 나눔으로써 어떻게 의를 행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것들을 토론한다. 가족들이 기도를 통해 도움을 받았던 경험을 함께 나누게 한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34쪽: 사사가 물문경을 읽었던 세 가지 방법에 대해 나눈다. 그의 세 번째 방법은 앞선 두 가지 방법들과 어떤 점에서 달랐는가? 모로나이서 10장 4~5절을 읽고 모로나이의 약속에 대해 토론한다.

“나랑 같이 초등학교에 갈래?” 친12쪽: 여러분의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대해 좋아하는 점을 이야기하게 한다. 이 기사에 담긴 이야기를 가족과 함께 요약해 본다. 그들이 초등학교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초등학교나 초등학교 활동에 누군가를 초대하는 목표를 세운다.

“가족 금식” 친15쪽: 기사를 읽고, “친절 향아리”에 대해서 가족들과 함께 생각해 본다. 레오나르도와 마리아나의 금식과 희생이 어떻게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축복했는지 토론한다. 여러분의 가족 또한 특별한 축복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가족 금식을 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이번 호의 주제들

페이지 수는 기사의 첫 번째 페이지를 뜻합니다.

친-친구들	선지자, 2
가정의 밤, 1, 26	성신, 44, 45, 47
가족, 2, 26	성전, 친6
간증, 34, 47	신권, 친10
개종, 친12	신앙, 30, 34
개혁자, 친8	영감, 38, 44, 45
금식 헌금, 46	예수 그리스도, 47
금식, 친15	조셉 스미스, 친6
기도, 30, 45, 47, 친10	창의성, 38
모범, 34	창조, 25
물문경, 47	초등학교, 친12
몸, 25	축복, 30
봉사, 34, 44	침례, 34
선교 사업, 22, 34, 46, 친2, 친4, 친10, 친12, 친16	하나님의 속성, 25, 친10
	헌신, 22



선지자의 음성에 귀 기울임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이전 세계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 선지자, 선전자, 계시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고양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고 특권입니까! 이 교회의 회원인 우리들은 여러 언어를 사용하고 여러 문화권에서 살고 있지만 복음이 주는 똑같은 축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진실로 범세계적인 교회이며, 지상의 온 나라에 퍼져 있는 회원들은 언어나 인종, 민족적 뿌리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편적인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계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이며,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십니다.

친절하게도,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고 그분의 복음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는 선지자들을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는 사랑하는 선지자, 고든 비 헝클리 회장님께(1910~2008)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분은 주님께서 본향으로 불러가시기 전까지 여러 해 동안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도록 부르신 새로운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인도 하에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크신 사랑으로, 1800년대 초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이 위대한 사업을 회복하신 이후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이 시대에도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초기 성도들에 대한 기억, 즉 그들의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지자를 따르면서 보인 그들의 희생과 슬픔, 눈물과 용기와 신앙, 그리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항상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19세기 개척자들 가운데에는 저의 조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회원이 된 이후, 저는 평원을 건넌 그 초기 개척자들이 저와 매우 가까운 관계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영적 조상이며, 국적이나 언어나 문화에 상관없이 교회의 모든 회원들의 영적 조상이 됩니다. 그들은 서부에 안전한 장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국가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영적 기초를 세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개척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가 전 세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는 자신의 분야와 환경에서 개척자입니다. 저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혼란과 불안의 시기에 놓여 있던 독일에서였습니다. 당시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님이(1870~1951) 교회 회장이셨습니다. 그때 저는 어린 아이였고, 우리



하 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크신 사랑으로, 1800년대 초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이 위대한 사업을 회복하신 이후로 끊임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이 시대에도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영감어린

권고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가족을 강화하는 것은 인류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족은 7년 동안 두 번에 걸쳐, 가진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우리는 피난민이었으며 우리의 앞날은 불확실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7년 동안, 우리는 결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절망에 대한 방어적인 신성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과 참되고 살아계신 선지자에 의해 인도되는 그분의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무덤으로부터 구속하시고 각 개인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상하시며 인류를 위해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좋은 소식은 제 인생을 희망과 화평으로 다시금 치유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든,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정화시키고 위로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믿는다면 우리의 짐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의 평안을 받아들일 때 치유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1873~1970) 제가 십대였을 때 선지자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사랑과 친절과 위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젊은 시절, 그분은 저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비록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유럽에서 성장했지만, 저는 그분이 저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그분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힘의 원천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가 가장 신뢰한 조력자이자 친구였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 우리 주를 증언함 … [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디모데후서 1:7~8)

구주의 고대 사도들 중 한 분이 하신 이 말씀은 전후 시대를

사는 세계 큰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으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제적 긴장,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 개인적 어려움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까?

지속적인 음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큰 와드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작은 지부에 속해 있을 수도 있으며, 기후나 환경이 다를 수도 있고, 문화적 배경과 언어가 다양하며, 피부색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된 복음의 보편적 권능과 축복은 문화, 국적, 정치제도, 전통, 언어, 경제적 환경, 또는 교육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시금, 망대의 파수꾼이자 치유하는 하늘의 진리를 전하는 사자인, 사도, 선견자, 계시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우리 회원들의 서로 다른 여건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근원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 길을 알려주며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줍니다.

몇 년 전에 제일회장단 메시지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점들이 우리의 앞길을 음울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복잡한 현대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지혜롭고 합당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확실하고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그분은 우리의 진실한 청원에 응답을 주시지 않은 채 우리를 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¹

우리에게는 다시금, 지상에 살아계신 선지자인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알고 계시며, 영감 받은 응답을 갖고 계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참된 회개와 속죄의 권능과 용서의 기적에 의지함으로써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물론경이 다음과 같이 확증해 주듯이 주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백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 하나님께서는 이해력에 빛을 주시니, 이는 그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를 따라 그들이 이해하도록 말씀하심이니라.”(니파이후서 31:3)

그분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행함으로써 회복된 복음의 의식과 성약의 축복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으나,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아무 약속도 받지 못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2:10)

완전한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너무 과중하거나, 상처받거나,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길르앗의 유향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원한 운명을 위한 창조주의 계획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라고 가르칠 때, 그분들의 말씀을 들읍시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시며 다음과 같은 말로 복돋아 주십니다. “또 모든 일이 지혜와 질서 안에서 행해지도록 할지니, 이는 [남자나 여자나 그들이] 가진 힘보다 더 빨리 달음질함이 요구되지 아니함이라. … [그러나 그들은] 부지런할 필요가 있느니라.”(모사이야서 4:27)

그들의 권고를 따름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보다 더 빨리 달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데 부지런합니까? 아니면 너무 느긋하게 느장을 부릅니까?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재산을 현명하게 사용합니까? 가장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추니까? 선지자의 영감어린 권고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가족을 강화하는 것은 인류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1915년에 우리에게는 가정의 밤의 원리가 주어졌습니다. 1964년, 맥케이 회장님은 부모들에게 “다른 어떤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다”고 상기시켜 주셨습니다.² 1995년, 우리 시대의 선지자들은 온 세상에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을 강화하라고 호소했습니다.³

그리고 1999년에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사랑에 찬 다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들이 가족 기도, 가정의 밤, 복음 공부와 훈계, 건전한 가족 활동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아무리 합당하고 적절한 다른 요구나 활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오직 부모와 가족들만이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성하게 지명된 이 의무들을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⁴

인류애와 신앙 안에서,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을 부지런히 따르겠다는 우리의 헌신과 성약을 새롭게 합시다. 왕국의 모든 열쇠를 지닌 분들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아 교화되시다.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선한 일을 하려는 큰 소망이 생기게 되기를 기원합니다.(앨마서 19:33 참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적 기초를 놓는 개척자들이 되어, 세상 구석 구석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각 자녀를 축복하게 하며, 우리 가족을 단합하고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

주

1. “인생 향로의 안전한 항해” 성도의 빛, 1999년 11월호, 6~7쪽
2. J. E. McCulloch, *Home: The Savior of Civilization*(1924년), 42쪽에서 발췌; 대외 보고, 1964년 4월호, 5쪽
3.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참조,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4. “제일회장단 서한”, *성도의 빛*, 1999년 12월호, 1쪽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공부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면서 이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먼 곳에 있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지 묻는다. 지도와 안내자가 어떻게 도움이 될지 말한다. 선지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도록 돕기 위해 마련해 주신 안내자라고 설명한다. 메시지에서 이 점을 강조하는 부분을 찾아 읽는다.
2. 여러분이 어린이 또는 십대였을 때 교회 회장이었던 분에 대한 기억을 나눈다. 살아계신 선지자의 가르침이 어떻게 평생 동안 여러분을 인도했는지 이야기한다.



맞은편 페이지, 위에서부터: 아이어링 회장의 가족(왼쪽부터) 헨리(아버지), 테드와 하든(형제들), 어린 헨리(할, 밀드레드(어머니), 할, 1951년 고등학교 연보. 오른쪽: 증조부모 헨리 아이어링과 메리 보멜리.

사이에서 태어난 세 아들 중 둘째로, 영적인 학문과 세상적인 학업 모두를 중요시하는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부친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저명한 화학자였습니다. 유타 대학교의 조교수로 여성 체육교육과를 이끌던 어머니는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잠시 학교를 휴직하던 중, 미래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아들들에게 주님과 그분의 복음에 대한 그들의 신뢰와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신앙의 유산

아이어링 회장의 가족이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은 조상들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의 조상들은 영의 속살임에 귀 기울이고 신권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랐던 분들이었습니다. 1853년, 열여덟 살에 독일을 떠난 그의 증조 할아버지 헨리

아이어링은 이듬 해에 미주리 주 세인트 루이스에서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관한 계시를 받고 싶어 했던 그의 소망은 꿈속에서 응답되었습니다. 한번도 만나 본 적이 없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에라스투스 스노우 장로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1860년에, 지금은 오클라호마 주와 아칸소 주라 불리는 지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던 중 이와 유사한 꿈에서 브리검 영 회장님을 보기도 했습니다.¹

증조부인 아이어링은 선교 사업을 마치고 유타로 돌아가던 중, 스위스에서 이민 온 메리 보멜리를 만났고 그녀가 속한 개척자 그룹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메리의 가족은 그녀가 24세였을 때 교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녀는 독일 베를린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투옥된 적도 있었습니다. 체포되던 날 밤, 그녀는 자신의 사건을 맡기로 되어 있던 판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는 “세상 사람”인 판사에게 부활과 영의 세계에 관해 말했으며, 회개하여 그 자신과 그의 가족을 “큰 슬픔”에서 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얼마 후 그 판사는 고소를 취하했고, 메리는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² 헨리와 메리는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직후 결혼했습니다.

아이어링 회장의 조상들은 유럽에서부터 유타 남부와 애리조나의 사막을 거쳐 멕시코 북부의 식민지까지 광야를 일구고, 복음을 전파하고, 핍박을 피해 다녔으며, 학교를 세우고,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아내의 영향력

제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자, 아이어링 가족은 가솔린 배급 제한 때문에 17마일(27킬로미터)을 운전해야 하는 뉴브런즈윅 지부의 일요 모임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이어링 가족은 뉴저지 주 프린스턴에 있는 자신들의 집에서 모임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할은 그곳에서 한번도 초등학교에 빠진 적이 없다는 농담을 하곤 했는데, 그들의 집에서 초등학교가 단 한 차례 열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이어링 회장은 종종 자신의 가족들과 가끔씩 오는 방문자들로 이루어진 이 작은 지부에서 열렸던 성찬식의



아름다운 영에 대해 회상하곤 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유일한 참석자인 것이나 자신과 형제들이 지부 아론 신권의 전체 구성원이라는 점을 껴넘치 않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 이르자 후기 성도들이 더 많은 지역에서 그녀의 가족이 살기를 바랐습니다.

1946년에 할의 아버지 헨리는 프린스턴에서의 성공과 업적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수의 명예 박사 학위와 화학분야에서 주어지는 대부분의 주요 상들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지들과 함께 공들여 이룬 과학적 업적 덕분에 그는 노벨상 후보에 거론되는 훌륭한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 무렵에 헨리는 유타 대학교 총장인 에이 레이 올핀으로부터 그곳에서 대학원 학장이 되어 화학 분야에서의 연구를 계속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 밀드레드는 헨리에게 결정을 맡기며 몇 년 전에 그들이 했던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헨리는 아이들이 더 자라면 교회 본부 가까이로 이사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헨리가 그 제의를 거절하자, 유타에서 성장한 밀드레드는 남편에게 그 결정에 대해 기도해 볼 것을 부탁했고 연구실에 도착해서 읽을 편지 한 통을 주었습니다.

헨리는 밀드레드의 실망 어린 편지를 읽고, 기도하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런 후, 그는 올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학의 자연과학학부를 발전시키기 위해 제안을 받아들여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린스턴을 떠나는 그의 명백한 희생은 그와 그의 가족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축복 중 한 가지는 오랜 세월 후, 할이 이와 비슷한 결정을 내려야 했을 때 그가 아버지 헨리의 모범을 기꺼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를 준비함

형은 조언자요 친구라 일컫는 아이어링 회장의 동생 하든 아이어링은 “형이 십대가 되었을 때 저는 형이 다른 십대들과

얼마나 다른가를 깨달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든은 형 할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몰몬경을 다섯 번이나 읽을 만큼 경전에 몰두했다고 말합니다.

할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지는 않았지만 영성을 해칠 만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거절했습니다. 그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이스트 고등학교 대표선수로 농구를 하기 위해 시간을 냈지만, 첫 번째 우선 순위는 공부였습니다. 하든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십대 시절에 저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형은 밤에 젊은 사람들이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곳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공부를 했습니다.”

유타 대학교 화학 교수인 아이어링 회장의 형 테드는 유타 대학교 4학년 때 할과 몇 가지 수업을 같이 들었습니다. 테드는 할이 그 수업을 듣는 어느 학생들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중한다면, 할은 목표하는 그 무엇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기도 하지요. 또한 그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할은 아버지와 많이 닮았죠.”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 할은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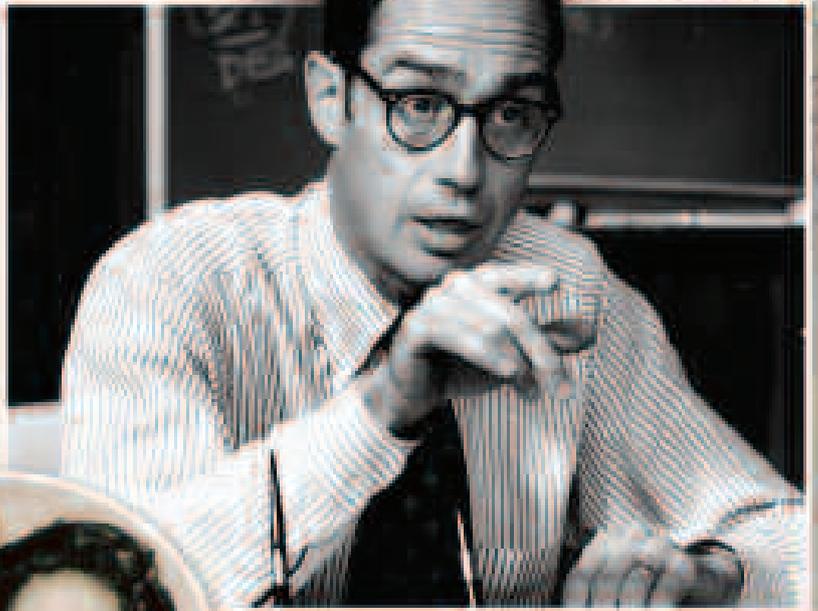
헨리 아이어링은 아이들이 물리학을 공부하고 과학 분야의 직업을 준비하도록 격려했습니다. 할은 충실하게 유타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헨리는 자신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도와 달라고 부탁한 할이 거기에 열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어링 회장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아버지는 지하실에 보관하던 칠판 앞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갑자기 멈추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우리는 일주일 전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공부했었지. 너는 그때보다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지 않구나. 계속 공부하지 않았니?’

할은 공부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물리학은 자신이 생각해 왔던 것이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던 아버지는 부드러운 어조로 아들에게 가장 흥미를 느끼는 전문 분야를 추구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네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찾도록 해라. 그것을 찾게 되면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그 일만 생각하게 될 것이다.”³

그렇지만 할은 미 공군에 입대하기 전인 1955년에 물리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때는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였고, 그 당시 각 와드에서 전임 선교사로 부름 받는 젊은 형제들의 수는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한동안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이 문을 닫아서 임지로 나가는 선교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할의 감독은 축복을 주며 군 복무가 그의 선교 사업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할은 뉴멕시코 주 앨버커키 근처의 샌디아 기지에 도착하고 2주일이 지난 후, 웨스턴 주 선교부의 지방부 선교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는 군에 있는 2년 동안 저녁과 주말마다 그 부름을 수행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후 할은 하버드 경영 대학원에 등록하여 1959년에 경영학 석사 학위를, 1963년에는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과학자로 성공할 수 있는 지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할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양하고, 강화하는 일에 가장 흥미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에 귀 기울임

1961년 여름, 하버드에 다니는 동안 할은 캘리포니아 주 팔로 알토의 제이 시릴과 라파엘 린지 존슨의 딸인 캐슬린 존슨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보스틴에서 여름 학기를 듣는



중이었습니다. 할은 첫 눈에 그녀에게 반했습니다. 할은 그녀와 있을 때면 그 즉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열망을 느꼈고, 이 느낌은 그들이

함께 해 온 여정 동안 늘 지속되었습니다.

그 여름 동안 그들은 데이트를 했고 캐슬린이 캘리포니아로 돌아간 후에는 계속해서 전화와 편지를 주고 받으며 교제했습니다. 그들은 1962년 7월, 유타 로간 성전에서 스펜서 더블류 킴볼 장로의 집행으로 결혼했습니다. 같은 해에 할은 스탠포드 경영 대학원 조교수가 되었습니다.

9년 후 할은 스탠포드에서 종신 교수로서의 삶에 만족하며 스탠포드 제1와드의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처갓집 근처에서 생활하는 “안정된 삶”이었다고 회상합니다. 그러나 1971년 어느 날, 캐슬린은 그를 깨워 독특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일생동안 당신이 해야 할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나요?”

그 이상 어떻게 더 행복할 수 있을지 의아해하며 할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캐슬린은 “닐 맥스웰 형제님을 위해 연구 활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닐 에이 맥스웰은 그때 막 교회 교육 기구 교육 총감에 임명되었습니다. 할과 캐슬린은 그를 알지 못했지만, 캐슬린은 남편이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무언가를 더 할 수 있을 것이라

맞은편 페이지: 아이어링 회장의 부모와 1969년 그의 아버지의 초상. 위: 리스 대학 총장으로 봉사하던 시절. 왼쪽: 아내 캐슬린과 함께 결혼 피로연에서. 맨 위 왼쪽: 리스 대학 총장으로서, 1973년 도나 패커 자매에게 올해의 모범적인 여성 상을 수여하고 있는 아이어링 회장,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과 당시 여성 학생회 회장이었던 드니스 헨스 존슨과 함께



위: 1997년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 시절. 오른쪽: 최근 유타
남부 방문 중에. 맨 오른쪽:
2004년 6월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동안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밸라드
장로와 함께. 맞은편 페이지:
1995년 가족 사진(앞줄,
왼쪽부터) 메리 캐슬린,
아이어링 회장 부부,
엘리자베스, (뒷줄, 왼쪽부터)
존, 매튜, 스튜어트, 헨리.



여겼습니다.

“닐 맥스웰 형제님을 위해 연구 활동을 하다니, 지금의 내 직업으로 말이요?” 할이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연구 활동은 젊은 대학원생이나 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캐슬린은 “그것에 대해 기도해 보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의 그 시점에서 할은 아내의 조언을 무시해 버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소리 내어 기도했습니다. “저는 아무 응답도 받지

못했는데 오히려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다음날 감독단 모임을 하는 동안, 할이 잘 알고 있는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 아내의 영감을 가볍게 여긴 것에 대해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는 “너는 네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어느 길인지 알지 못하니, 만일 다른 직업 제의를 받거든



나와 상의해야 하느니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은 그 경험에 크게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서 캐슬린에게 말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는 스탠포드에 있는 동안 여러 직업 제의를 거절했었는데 그러한 실수가 걱정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제의들에 대해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할은 말합니다.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미래에 관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캐슬린이 한밤중에 질문을 던지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교육 총감인 맥스웰 형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맥스웰 형제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리는 모임에 할을 초대했습니다. 그는 다음날 비행기를 탔고, 두 사람은 할의 부모님 집에서 만났습니다. 맥스웰 형제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형제님이 리스 대학의 총장이 되었으면 합니다.”였습니다.

아내의 영감이나 그가 받은 영의 꾸짖음도 이

놀라운 일에 그를 준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맥스웰 형제에게 그것에 대해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리스 대학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제일회장단을 만났습니다. 그런 후 맥스웰 형제는 그가 원한다면 총장직을 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로 돌아온 할은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왔지만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너무나 희미한 음성을 들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는 회상합니다. “그 음성은 ‘이 학교가 내가 일할 곳이다’ 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는 맥스웰 형제에게 전화해서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은 스탠포드 종신 교수직을 그만 두고 아이다호 주 렉스버그에 있는 좁은 이동 주택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 12월 10일, 그는 리스 대학 총장으로 취임했고, 몇 개월 후에 그의 가족들은 그가 건축을 도운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리스에 가면서 몇 가지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 한 가지는 스탠포드에서의 대단한 위치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저보다 제 아내가 먼저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제 자신이 그곳에 갈 수 있는 운 좋은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떻게 스탠포드의 교수직을 그만 둘 수 있었지?’ 라고 질문 하기 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살펴 주셨어. 그것은 결코 희생이 아니었지.’ 라고 말합니다.”

아이어링 회장이 렉스버그에서 보낸 6년은 그의 가족과 학교에 축복이 되었습니다. 겸손한 가정 복음 교사의 현명한 조언 덕분에 그 시간들은 더욱 기억할 만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 가정 복음 교사는 큰 신앙을 지닌 농부였는데, 아이어링 회장에게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대학 교수진과 직원 및 학생들을 만나고, 격려하며, 감사를 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할은 그 일에 대해 기도했고, 그 조언에 따르라는 영감을 받았으며, 학교 내의 충실한 학생들, 헌신적인 교수진 및 직원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교수와 함께 종교 수업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가 대학의 영적 학문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일할수록 학교와



렉스버그 주민들에 대한 그와 캐슬린의 사랑은 커 갔습니다.

가족을 우선시함

렉스버그에서 지내던 몇 년 동안 아이어링 가족은 서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할과 캐슬린에게는 헨리 제이, 스튜어트, 매튜, 존 이렇게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두 딸, 엘리자베스와 메리 캐슬린을 얻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작은 시골 농가 마을일지라도 할과 캐슬린이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 중 한 가지는 아들이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양과 질이었습니다. 큰 아들인 헨리 제이는 아이어링 가정의 정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경험을 회상합니다.

“어느 토요일 밤 자정 무렵, 저와 동생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될 저속한 코미디 쇼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하 방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제외하고는 캄캄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매끄러운 흰색 잠옷을 입으신 어머니는 큰 가위를 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소리 없이 텔레비전 뒤로 가시더니, 코드를 고리 모양으로 말아 쥐셨습니다. 그런 뒤 코드를 가위로 단번에 잘라버리셨습니다. 불꽃이 튀며 텔레비전이 꺼졌고, 어머니는 몸을 돌려 조용히 방을 나가셨습니다.”라고 헨리 제이는 말합니다.

헨리 제이는 낙담하여 침대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영리한 그의 동생은 고장난 진공 청소기의 코드를 잘라 그것을 텔레비전에 연결했습니다. 곧 아들은 텔레비전 앞으로 돌아와 앉아, 그 쇼를 끝까지 다 보았습니다.

헨리 제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최후의 승자는 어머니였습니다. 이튿날인 월요일에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두꺼운 유리 화면 한가운데가 크게 금이 간, 마루

중앙에 놓여 있는 텔레비전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어머니를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앞에 서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자 어머니는 정색을 하시며 ‘텔레비전 아래의 먼지를 닦고

있었는데, 그게 그만 미끄러져 넘어지더구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이어링 회장은 아내의 소망을 존중했고, 자녀들은 어머니의 소망을 존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아이어링 가정의 마지막 텔레비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주로 조용한 모범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영감을 받으면 두려움을 모르십니다. 어머니의 단호함은 자녀들과 손자손녀들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이나 일상 생활에서 어머니는 우리 삶의 행로를 영원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라고 헨리 제이는 평합니다.

아이어링 회장은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주는 아내를 한결같이 신뢰하며, 그녀가 같은 방법으로 자녀들을 축복해 왔다는 사실에 고마워합니다. 그는 가족에 대한 그녀의 모범과 영적인 영향력을 즉각적으로 칭찬합니다. 그녀 역시, 영에 대한 남편의 민감성과 가정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그에 따라 생활해 온 것에 찬사를 표합니다.

“할의 마음속에 누가 우선 순위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는 스탠포드에 있는 유능한 동료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았지만 항상 가족을 우선 순위에 두었지요. 하루를 마치고 저녁 시간을 함께할 때면 그는 ‘우리가 통화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그러고는 영의 인도에 따라 전화기 앞으로 가서 그날 저녁 통화가 필요한 가족과 연락을 해요.”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지자 가족들은 서로를 위한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됐고, 관심 있는 일을 하고, 재능을 발전시키고, 운동 및 다른 가족 활동을 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아이어링 회장은 요리 실력을 쌓았고(손수 빵을 만들 정도로), 목각에 대한 재능을 발견했으며, 수채화를 배웠습니다. 가끔씩 그가 감사 편지나 기념 수채화를 보내올 것입니다.

오늘날 아이어링 회장의 집은 그림과 조각,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제작한 가구들로 가득합니다. 많은 작품들이 도덕적 가르침이나 영감을 반영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는 25명의 손자손녀가 더해진 가족들에게 매일 “작은판”이라 부르는 애정 어린 이메일을 보내는 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이메일로 가족 일지와 사진, 자녀들로부터 온 소식들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치 저녁 식사 때마다 함께 둘러 앉아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 듭니다.”라고 헨리 제이는 말합니다.

기꺼이 봉사하고자 함

당시에는 몰랐지만, 아이어링 회장이 리кс 대학의 총장 자리를 받아들였을 때 그는 세속적인 직업을 뒤로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는 대학 총장인 동시에 지역 대표와 주일 학교 본부 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하면서 교회 지도자들과 더 많이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지닌 재능과 영적인 은사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사이 주님께서는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리кс 대학에서 6년을 보낸 아이어링 회장에게 중대한 부름들을 부여하면서 자신들을 그에게로 이끈 영감을 구했습니다. 그러한 부름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그는 일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응답에 귀 기울일 때, 그리고 그의 조상들처럼 영감에 따라 행할 때 영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부름이 왔을 때,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977년, 교회 교육 기구의 새로운 교육 총감이었던 제프리 알 홀런드 형제는 아이어링 회장에게 부 교육 총감으로 봉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3년 후, 홀런드 형제가 브리검 영 대학교의 총장이 되자 할은 그를 대신하여 교회 교육 기구 교육 총감이 되었고, 1985년 4월에 감리 감독단 제1보좌로 부름 받을 때까지 그 직분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는 이 부름에서 관리, 시설 계획, 성전 설계, 건축 및 그 밖의 현세적인 임무에서 많은





느끼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일지에 기록하면서 간증이 커짐을 느꼈고 “그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⁴

그는 이러한 응답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열쇠는 듣는 귀를 발달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조용히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제 인생에서 명확한 느낌을 받지 못했거나 영의 음성을 놓친 때가 있다면 그것은 너무 바쁘거나, 너무 산만하거나, 개인적인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어링 회장은 언제나 신앙개조 제13조의 교훈에 따라 생활합니다. 그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과 디이터 에프



맞은편 페이지: 프린트로 출력한 아이어링 가족의 “작은판”, 아이어링 회장이 조각한 나무 상자 및 수채화 몇 점. 위: 2007년 연차 대회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왼쪽: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가운데),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2보좌인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재능들을 발휘하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1992년 9월에 그는 교회 교육 기구 교육 총감으로 다시 한 번 지명되었고, 한 달 후에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1995년 4월 1일, 헨리 비 아이어링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사도로 지지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설교와 사랑의 봉사, 그리고 구주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힘있는 간증으로 전 세계에 있는 교회 회원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더 많은 주님의 영을 간구해 왔습니다.

특별한 책임자

2007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아이어링 회장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축복에 대해 간증하면서,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의 생활 속에서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의 곁에서 봉사하게 된 것은 교회 회원들에게 있어 정말 행운입니다. 흔치 않게, 재능, 신앙의 유산, 준비하는 삶, 봉사에 대한 헌신 및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결심을 두루 갖춘 그는 제일회장단에서 봉사할 특별한 책임자일 것입니다. ■

주

1. 헨리 제이 아이어링, *Mormon Scientist: The Life and Faith of Henry Eyring* (2007년), 127~130쪽 참조.
2. 헨리 비 아이어링, “교리를 가르치는 일이 미치는 권능”,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85쪽 참조.
3. 제럴드 앤 런던,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결정적인 영향’을 받아 인격이 형성됨” *성도의 빛*, 1996년 4월호, 26쪽.
4. 헨리 비 아이어링, “오 기억하고 기억할지이다”,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67쪽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가정적인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
예임된 사람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1 952년 가족이 동독의 집을 떠나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피난하면서, 열한 살인 디이터 우흐트도르프의 마음에 지냈을 두려움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디이터의 아버지는 목숨이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녀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홀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나머지 가족들은 함께 여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따로따로 탈출을 시도해야만 했습니다.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디이터의 두 형들인 볼프강과 칼-하인츠는 그들의 고향인 츠비카우의 북쪽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의 여동생인 크리스텔은 다른 두 소녀들과 함께 잠시 서독을 경유해 다시 동독으로 돌아오는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가 서독을 통과할 때, 소녀들은 차장을 설득해 문을 열고 기차에서 뛰어 내렸습니다.

11세로 막내였던 디이터와 그의 용감한 어머니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약간의 음식과 제2차 세계 대전의 파괴 속에서도 지켜온 소중한 가족 사진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디이터와 어머니는 장시간을 걸었고 어머니의 무릎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디이터는 모든 짐과 소지품을 자신의 손에 들고



어머니가 자유를 향한 마지막 언덕길을 오르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멈춰 간단히 식사한 뒤, 러시아 경비들을 보았을 때, 자신들이 아직도 국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식사를 끝내고 짐들을 꾸려 그들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전보다 더 높은 언덕 길을 올라 갔습니다.

피난민인 디이터와 어머니는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그들의 목적지인 프랑크푸르트 근교로 계속 여행을 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 날 동안 많은 위험을 겪은 후에야, 마침내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형들이 먼저 도착했고, 아버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후 디이터와 어머니가 도착했으며, 마지막으로 그의 누나가 왔습니다. 그들은 이 특별한 재회로 기쁨에 넘쳤습니다.

사실상 그들이 전 재산을 남겨 두고 떠나왔다는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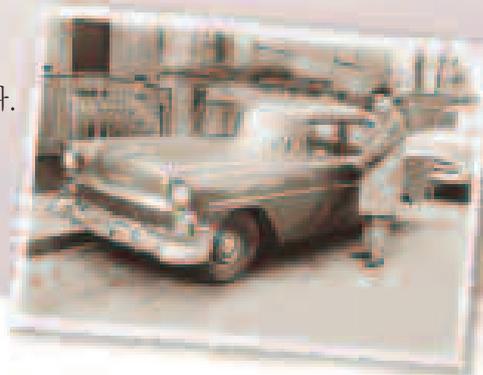
7년 전,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 외세가 몰려오자 그들은 집을 떠나 피난했습니다. 이제 다시 피난자가 된 그들은



왼쪽, 맨 위에서부터: 스위스 베른 성전에서 우흐트도르프 회장의 부모인 힐데가르트와 칼. 12살 때, 2살 때(오른쪽 두 번째) 누나 크리스텔(오른쪽) 및 두 친구들과 함께. 오른쪽, 맨 위에서부터: 프랑크푸르트 집회소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한 디이터(오른쪽). 청년 독신 성인 모임에서(뒷줄 맨 왼쪽): 앞에서 왼쪽 두 번째, 미래의 아내 해리엇. 프랑크푸르트에서 친구의 차와 함께.

또 다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며, 5년 전에 침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생활했던 프랑크푸르트 근처의 단칸방 아파트는 비좁았고 쥐들이 들끓었습니다. 어린 디이터에게는 돌아다니는 쥐들이 흥미로웠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대중 교통은 상대적으로 저렴했지만 매주 가족 모두가



교회로 갈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대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성스러운 가족 제도에 대해 그토록 열의를 품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진심을 다해 그는 가족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임을 간증합니다. 가족은 그에게 최고로 중요합니다. 강인한 신앙의 씨앗을 심고 가꾼 곳은 바로 그의 가족 안에서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교회의 신권 지도자로서 예임된 임무를 성취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정적인 사람

디이터 프레드리히 우흐트도르프는 1940년 11월 6일에 체코슬로바키아의 마흐리쉬오스트라우에서 훌륭한 부모, 칼 알베르트와 힐데가르트 엘세 오펔트 우흐트도르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1944년에 체코슬로바키아를 떠나 독일의 츠비카우로 이주했습니다. 1949년부터 1990년까지 츠비카우는 동독에 속한 탄광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이곳은 연합군 폭격기의 주요 표적이 되었습니다.

4살이었던 디이터는 겁이 났지만 한편으로 머리 위로 나는 비행기의 빛들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안전을 위해 공습 방공호로 자신을 데려간 것을 기억합니다. 남편이 독일군에 징병되자 우흐트도르프 자매는 유럽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훌륭하게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디이터의 아버지는 츠비카우의 석탄 광산과 우라늄 광산에서 일했는데, 악성 질병에 걸리기 쉬운 그러한 환경때문에 그는 62세의 나이로 독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아버지를 친절하고 사랑이 많으며, 강인하고 온유한 분으로 기억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집사, 교사, 제사 그리고 장로로서의 신권 책임을 사랑했습니다.

1991년에 돌아가신 어머니, 힐데가르트는 용감했을 뿐만 아니라 진실한 개종자였고, 교회의 많은 부름에서 봉사한 헌신적인 성도였습니다.

이 부모와 그들의 자녀들은 1956년에 스위스 성전에서 인봉되었습니다. 그 후, 형들인 볼프강과 칼-하인츠는 사망했습니다. 독일에서 선교사로 봉사한 그의 누나, 크리스텔 우흐트도르프 아쉬는 현재 미국 남부의 텍사스에 살고 있습니다.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미래의 아내, 해리어트 라이히 자매를 교회의 상호 향상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해리어트는 13살 무렵에 선교사들이 집 문을 두드려서 복음을 배우게 되었으며, 어머니와 언니와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해리어트의 아버지는 침례를 받기 8개월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와 언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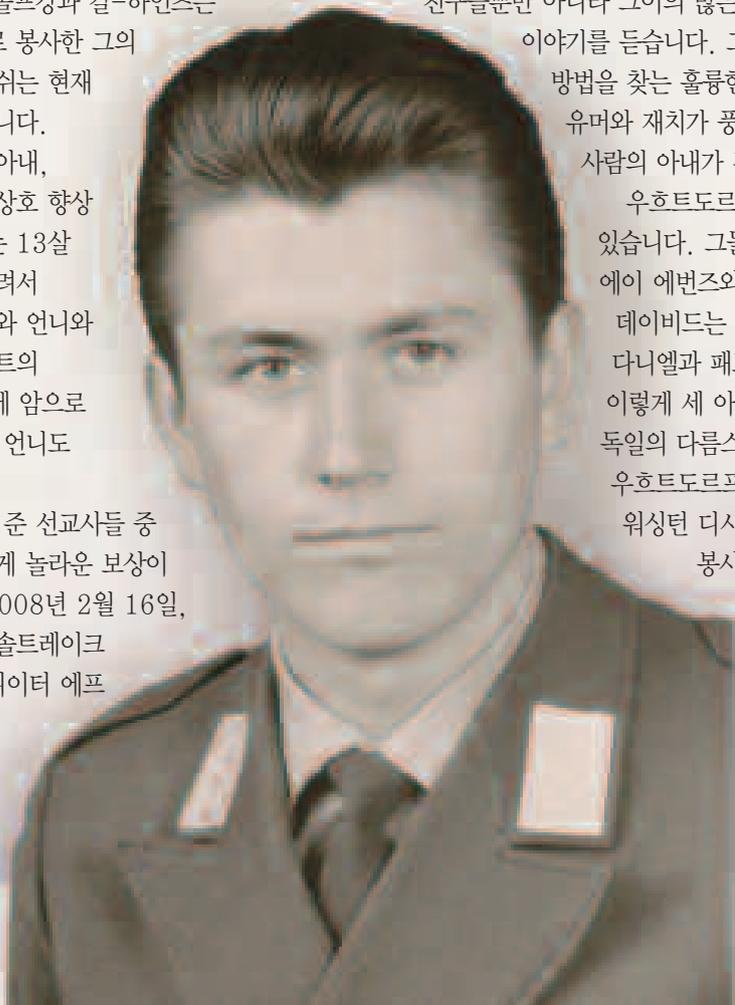
라이히 가족을 가르치고 침례 준 선교사들 중 한 명이었던 게리 젠킨스 장로에게 놀라운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2008년 2월 16일, 젠킨스 장로의 손녀 크리스탈이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제일회장단의 일원인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에 의해 남편 스티븐에게 인봉되었으니, 그에게는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해리어트와 디이터는 1962년 12월 14일에 스위스 베른 성전에서 인봉되었습니다. 그는 해리어트를 자신의 인생의 햇빛이라고 부릅니다. 그녀의 지지는 그에게 끊임없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녀는 그의 인생에서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해리어트는 남편을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이는 친절합니다. 선하고 인정이 많은 지도자이지요. 우리는 교회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의 많은 전직 동료들에게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이는 언제나 저를 도울 방법을 찾는 훌륭한 남편입니다. 그이는 유머와 재치가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아내가 된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흐트도르프 부부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의 딸, 안트예는 데이비드 에이 에번즈와 결혼했습니다. 안트예와 데이비드는 19살의 쌍둥이 형제인 다니엘과 패트릭, 그리고 8살 난 에릭, 이렇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독일의 다름스타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흐트도르프 부부의 아들, 구이도는 워싱턴 디시 남 선교부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는 스위스 바젤 출신의 캐롤린 왈드너와 결혼하여 현재 스위스 취리히 근교에서 살고 있으며, 스위스 성 갈렌 스테이크, 베치콘 와드의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7살의 자스민, 5살의 로빈, 그리고 1살 된 니클라스 이반, 이렇게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그의 새 부름에 관해 물었을 때, 딸 안트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훌륭한 부모님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해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께서 얼마나 바쁘는지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최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의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제 자녀들은 할아버지께 어떤 질문을 해도 그분은 답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제일회장단에 속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더 큰 책임을 느낍니다.”

구이도의 추억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는 몇 년 전 가족 모두가 스키 강습을 받았던 때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스키를 타는 것은 즐거운 가족 전통의 시작이었습니다. 구이도는 아버지의 직업이 항공기 조종사였기에 장기간 가정을 떠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집에 돌아오시면 우리는 함께 놀고 이야기하고 웃었습니다.” 구이도는 “그것은 값진 시간이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이도와 안트예는 부모로부터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가 활동이 교육적이건 오락적이건 간에 그것은 가족 유대를 강화시켜 줍니다. 현대의 과학 기술 덕분에 우흐트도르프 가족은 이제 먼 거리에서도 부모와 조부모 역할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 통화 외에 인터넷을 통한 영상물과 사진 전송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는 시간은 소중합니다. 구이도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시간은 2008년 4월 연차 대회에 참석해 아버지가 컨퍼런스 센터 연단에 서 있을 때 그곳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가족과의 상담에서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언제나 기본적인 원리들을 강조했습니다. 구이도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기도, 경전 연구, 계명에 대한 순종,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통해 오는 축복들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아버지께 이것들은 콜롬이 어디에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흐트도르프 회장과 자매의 40번째 결혼 기념일에, 그들은 스위스 베른 성전에 모여 자녀들과 그들의 배우자들과, 장성한 손자손녀들과 함께 성스러운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 성전은 해리어트와 디이터에게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모와 그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모두 그곳에서 인봉되었기 때문입니다.

맞은편: 독일 공군에서 6년간 복무 후, 디이터는 미국 공군의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사령관 트로피를 받았다. 위: 그는 직업이 비행기 조종사인 관계로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어야 했으나, 그의 두 자녀(부모와 함께)는 그들의 아버지가 항상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음을 기억한다.

1996년 칩실인 제일
정원회에 부름 받기 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루프트한자 항공사에서
일했다. 맞은편 페이지:
2006년 우흐트도르프 가족,
왼쪽부터 서 있는 순서로
패트릭 에번즈(손자),
해리어트, 디이터, 그리고
다니엘 에번즈(손자). 앉아
있는 순서로: 데이비드
에번즈(사위), 안트예
에번즈(딸), 에릭
에번즈(손자), 로빈
우흐트도르프(손자), 캐롤린
우흐트도르프(며느리),
구이도 우흐트도르프(아들),
그리고 자스민
우흐트도르프(손녀).
우흐트도르프 회장과 자매의
가장 어린 손자인 니클라스
이반 우흐트도르프는
2007년에 태어났다.



신앙을 가진 사람

그의 특별하고 확고한 신앙심을 알지 못하고는 누구도 이 위대한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앙,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교회에 대한 신앙, 그리고 필요할 때 하늘의 도움이 올 것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이터의 부모님은 그들의 자유와 신앙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위임된 신권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특별히 동독에서의 위험한 탈출 중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어머니가 명석한 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어머니가 수학을 암산으로 할 수 있었고 자신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가르쳤다고 설명합니다. 비록 그의 가족은 전쟁 난민으로 두 번이나 무일푼이 되었지만, 그들은 십일조의 법에 따라 생활했습니다. 우흐트도르프 가족은 주님께서 충실하게 이 법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으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²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서독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셨던, 작고하신 테오도르 엠버튼(1907~1989년) 장로님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훌륭한 독일 후기 성도들이 그들의 모국을 떠난던 시기에,

우흐트도르프 가족은 독일에 머물며 그곳에 교회를 세우라는 버튼 장로님의 권고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를 장로의 직분에 성임하고, 디이터의 마음에 정확히 새겨질 만큼 잊지 못할 가르침을 주신 분이 바로 버튼 장로님이었습니다. 해리어트 우흐트도르프 자매는 우흐트도르프 가족에게 주신, 유럽에 남아 그곳의 교회를 강화하라는 버튼 장로님의 권고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똑같은 권고를 따랐습니다. 현재, 자녀들은 아직 유럽에 남아 그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들의 부모는 미국으로 떠나 버렸다고 자녀들은 장난삼아 이야기하곤 합니다.

물론, 우흐트도르프 회장에게 큰 영향을 준





지도자는 버튼 장로님만이 아닙니다. 디이터는 자신이 집사 정원회 회장으로 성별되었을 때의 지부 회장님을 기억합니다. 그 지부 회장님은 새로운 정원회 회장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철저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디이터는 집사 정원회에 자신과 다른 한 명의 회원만이 있다는 이유로 어린 지도자가 경시할 수도 있었을, 그 가르침의 중요성을 기억합니다.

이 가족의 신앙은 우흐트도르프 회장의 할머니의 신앙에 의해 구체화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할머니가 식량 배급을 받기 위해 줄을 섰을 때, 가족이 없는 한 연로한 독신 자매가 그녀를 성찬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할머니와 부모님은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 모임에 참석하여 영을 느꼈고, 회원들의 친절함에 고양되었으며, 회복의 찬송가에 감화되었습니다.³ 1947년 디이터의 부모님은 츠비카우에서 침례 받았고 거의 2년이 지난 후, 8살이 된 디이터도 침례 받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가족의 헌신은 강해졌고 지속적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기초는 성취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시켰습니다. 그의 경력은 공학 교육으로 시작하였으며, 뒤이어 6년간 독일 공군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런 후, 독일과 미국 정부 간의 교환 프로그램 덕택에 그는 텍사스 주 빅스프링에 있는 조종사 양성 학교에 입학하여 미국과 독일 공군 양쪽에서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는 반에서 탁월한 학생 조종사가 되어 절실히 바라던 사령관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1970년에 29세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는 루프트한자 항공의 기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루프트한자의 수석 조종사와 비행 운전 담당 수석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2004년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 받기 전에, 정말 우연의 일치로 우흐트도르프 장로와 저는 함께 루프트한자 비행기로 유럽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비행기로 여행하는 승객들이 총관리 역원을 알아보고 인사하는 것은 그다지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의 인사는 사뭇 달랐습니다. 사실상 모든 루프트한자 승무원들이 그들의 전직 수석 조종사에게 인사하기

왼쪽 사진: 헬명, 루프트한자 부두에서, 우흐트도르프 가족, 개광, 오른쪽 사진: 헬명, 엘디 시, 엘디스

위해 달려왔고 그와 악수하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들이 그에 대해 느끼는 존경심을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승무원들은 자신들에 대한 그의 애정뿐만 아니라 그의 훌륭한 신앙도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에 대한 우흐트도르프 회장의 신앙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1985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테이크의 회장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 후 지역 조정이 되면서 독일 만하임 스테이크의 회장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1994년, 그는 독일에서의 가정과 루프트한자의 직장을 유지한 채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1996년에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서 봉사하는 전임 총관리 역원이 되었습니다. 3년 후, 우흐트도르프 장로와 자매는 그들이 “해외에서의 임무”를 수행할 차레가 왔다고 여기며 유타로 이주했습니다.

2004년 우흐트도르프 장로가 거룩한 사도 직분에 부름 받았을 때, 몇몇 언론 기관에서는 그를 “독일 사도”라며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이 다른 어느 쪽도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대표하도록 부름 받았다고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정말로 그것은 그의 성스러운 부름입니다. 그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간증합니다.⁴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우흐트도르프 장로와 동시에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 받았습니다. 우흐트도르프 회장의 제일회장단 부름에 대해 베드나 장로님은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의 옆에 앉아, 함께 봉사하고, 그분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제 삶의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들과 마음을 끌어당기는 호의적인 태도는 제게 좀 더 부지런히 일하고 자신을 향상시키도록 영감을 줍니다. 저는 성스러운 책임을 맡으신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을 사랑하고 지지합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임된 사람

또한 그가 지금의 중요한 책임을 위해 예임되었다는 것을 모르고서는 누구도 이 위대한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교리는 고대와 현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엘마는 신권 지도자들이 “부름 받은 것이라—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좇아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비되었나니”⁵라고 가르쳤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1838~1918)은 (우흐트도르프 회장과 같은) 지도자들이 “또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태초에 택함을 받은 고귀하고 위대한 자들 가운데 있더라. 그들은 실로 태어나기 전에 다른 많은 자들과 함께 영의 세계에서 그들의 첫 교훈을 받았고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의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주께서 정하신 때에 나아오도록 예비되었더라”⁶고 밝히셨습니다.

우흐트도르프 회장의 어머니께 막내 아들이 언젠가 교회의 제일회장단에서 봉사하도록 부름 받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있었는지 물어볼 수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자유를 찾게 하고, 그의 목숨을 구하면서, 그 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녀와 그 자녀들이 공설 강당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녀는 그 건물을 즉시 떠나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 긴급한 느낌 때문에 그녀는 바퀴달린 손수레에 어린 디이터를 태우고 자녀들과 함께 가능한 한 빨리 그곳을 빠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건물은 폭격을 맞아 파괴되었습니다. 공설 강당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었지만, 우흐트도르프 자매와 자녀들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전후세대로서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폭격으로 파괴된 집들에서 놀았고 근처 숲속에 버려진 총, 탄약, 그리고 다른 무기들을





발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한 시기에 그는 항상 존재하는 전쟁의 결과와 자신의 조국이 다른 사람들에게 입힌 참담한 고통을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사실상, 그와 그의 가족들은 또한 압제적 독재정권의 희생자들이었습니다.

후에, 그가 비행기를 조종하던 중 조종 제어 장치가 고장났던 사건에서 살아남은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 수리 하지 않고 그 상태로 놓아 두면 비행기는 계속해서 좌우로 흔들리다가 추락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꿈쩍도 하지 않는 조종간을 풀기 위해 무엇이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의 비행 교관이 되풀이해서 탈출을 명했습니다. 결국 대단히 유능한 조종사였던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는 반대를 극복하고 비상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주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⁷

체코슬로바키아 태생으로 그러한 위험천만한 삶에서 살아남은 개종자 가족의 자녀가 후에 제일회장단에서 봉사하도록 부름 받을 수 있는 수학적 확률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 특별한 사람을 아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의 직분에 예임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그는 그의 신성한 부름으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 곁에 서 있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과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교회 회장님께 기꺼이 조언을 드릴 주님의 위대한 종들입니다. 이 세 분의 감리 대제사장은 서로를 보완합니다. 교회의 회원들은 그들의 영감 받은 지도력을 기꺼이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따를 것입니다. ■

주

1. 공식적으로는 독일 민주 공화국이라 칭함.
2. 말라기 3:10; 제3니파이 24:10 참조.
3.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간증 기회",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74쪽 참조.
4. 모사이아서 3:20; 또한 요한계시록 14:6, 니파이전서 19:17, 니파이후서 26:13, 모사이아서 15:28, 16:1, 앨마서 37:4, 교리와 성약 133:37 참조.
5. 앨마서 13:3.
6. 교리와 성약 138:55~56.
7. 제프리 알 홀랜드,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새로운 경험을 찾아", *리아호나*, 2005년 3월호, 13쪽 참조.

맞은편 페이지: 2004년 10월에 우흐트도르프 회장과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함께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 받았다. 위: 2008년 2월 4일, 솔트레이크시티의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제일회장단이 발표되었다.



**그의 발걸음에
있는 신앙 ...**

... 그의 마음에 있는 노래

40킬로미터의 힘든 보행도 브라질 회원 파울로 튜바르데가 충실하게 교회에 참석하려는 마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다이어드레 엠 폴슨

나는 “아침 저녁 매일 같이”¹나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²을 듣거나 부를 때마다 파울로 튜바르데가 생각난다.

어느 더운 날 남부 브라질에서 나는 파울로를 만났다. 교회 모임은 끝났고, 집회소는 복도에 앉아 있는 몇몇 회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어 있었다. 그때 브라질 큐리티바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던 남편은 파나라 구아라푸아바의 지방부 회장인 에드슨 루스토자 아라우조와 만나고 있었다.

“폴슨 자매님.” 남편의 보좌로 봉사하고 있던 제이슨 소우사가 말했다. “진흙 묻은 신발을 신고 복도에 앉아 있는 그 형제를 보셨습니까?”

브라질 남부에 있는 대부분의 도로는 붉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흙 묻은 신발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날씬하고, 검은 머리인 남자 말씀이세요?”하고 내가 물었다.

“네, 그의 이름은 파울로 튜바르데입니다. 그는 진흙이 너무 쌓여 올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주 일요일 걸어서 교회에 옵니다. 그는 열다섯 살 때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얼마나 되는 거리를 걷나요?” 소우사 형제의 대답을 전혀 짐작하지 못한 내가 물었다.

“40킬로미터요.” 그는 사실대로 대답했다. “그는 교회에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 새벽 3시에 출발합니다. 여덟 시간이 걸리죠.”

재빨리 킬로미터를 마일로 환산해 본 나는 튜바르데 형제가 구아라푸아바에 있는 교회에 참석하기 위해 25마일을 걷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나는 못 믿겠다는 듯이 물었다. “교회가 참되다고 믿기 때문이죠.”



남부 브라질에서 밭을 가는 동안, 파울로 튜바르데는 “큰 소리로” 교회 찬송가를 불러 이웃의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복음의 씨앗을 심는다.

“물론 그렇죠.” 나는 당연한 대답에 약간 당황했다. “제 말은, 그가 왜 그리 오랜 시간을 걸어야 하느냐고요?”

파울로는 심장 질환이 있는 74세의 어머니가 병원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이곳 구아라푸아바에서 지낼 수 있도록, 시골에서 가족 농장을 돌보며 살고 있다고 소우사 형제가

설명했다. 루스토자 회장이 파울로 어머니의 심장 전문의였다.

“파울로는 혼자 살면서 밭을 갈고 가축 몇 마리를 키웁니다. 그곳에는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습니다. 그의 농장은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서 8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버스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운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걸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소우사 형제가 말했다.

남편과 함께 방으로 들어온 루스토자 회장은 파울로가 보통 4주 중 3주는 교회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그는 길이 없어지지 않는 한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월요일에 버스를 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일요일 밤에는 이곳에서 머뭍니다.”라고 루스토자 회장이 말했다.

파울로가 4주 중 3주를 교회에 참석한다면, 단지 교회에 참석하기 위해 연간 1,600킬로미터(1,000 마일)에 달하는 거리를 걸으며 300시간 이상을 길에서 보내는 것이다!

파울로는 집에 있는 농장에서 일을 할 때 복음을 나눌 방법을



**아들 사울로와 함께 있는 파울로
튜바르데와 리타 튜바르데**

찾았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말 뒤에 쟁기를 매고 밭을 가는 동안,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겠다고 결심했어요. 각자 자기 밭에서 일하고 있는 제 이웃들은 제 노랫소리를 듣고 그게 무슨 노래냐고 묻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저는 복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신앙을 행사하기 위한 파울로의 정기적인 여행은 교회에 걸어가는 것만이 아니었다. 일년에 두 번, 그는 브라질 상파울로 성전에 참석하기 위해 530킬로미터(330마일)를 여행했다. 그러한 성전 방문 중에, 그는 성전에서 일하고 있던 리타 데 카시아 데 올리베이라를 소개받았다. 루스토자 회장의 부인 오데트 루스토자는 전에 성전에서 리타를 만난 적이 있었고, 파울로에게 그녀에게 편지를 쓸 것을 권유했다.

리타는 도시 생활에 익숙했고, 친구들을 좋아했으며, 가까운 곳에 예배당이 있는 와드의 회원이라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장거리 연애 끝에, 2003년, 상파울로 성전에서



**파울로는 가장 가까운 후기 성도 집회소로부터 40킬로미터(25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그의 농장에서 등잔불에 의지한 채 복음을 공부한다.**

파울로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와 함께 농장에서 살게 되었다.

그녀는 농장 생활에 적응했고, 성전 결혼의 축복에 감사하고 있다. “남편감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죠. 나머지는 다 적응할 수 있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오늘도 여전히 파울로는 밭을 갈면서 이웃들에게 찬송가를 들려줌으로써 복음의 씨앗을 심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여전히 구아라푸아바에 있는 교회로 40킬로미터를 여행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는 리타와 아들 사울로와 함께 여행하며, 일요일 새벽에 출발하는 대신 금요일 밤 늦게 그 주의 마지막 버스를 탄다. 성도들과 함께 주말을 보내고 일요일 모임에 참석한 후, 그들은 월요일 아침에 버스를 타고 농장으로 돌아간다. 주께서 그들을 보내시기 심히 원하는 곳으로 간 것을 행복해하며. ■

주

1. “아침 저녁 매일같이” 찬송가, 180장
2.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 찬송가, 146장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성구와 말씀을 가르친다. 교리에 대한 간증을 전한다. 여러분이 방문한 자매들에게 그들이 느끼고 배운 것을 함께 나누도록 권유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모세서 2:27: “나 하나님이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나의 독생자의 형상대로 내가 그를 창조하였고, 남자와 여자로 내가 그들을 창조하니라.”

고든 비 힝클리 회장(1910~2008): “우리의 육체는 신성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육체는 놀랍고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어떤 카메라도 인간의 눈의 경이로움에 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심장만큼 그토록 오랫동안 열심히 작동하는 펌프는 세상에 없습니다. 귀와 뇌도 기적입니다. ... 이들과 기타 신체 각 부분과 기관들은 하나님의 신성과 전능함을 나타냅니다.”(“깨끗할지어다”, *리아호나*, 1996년 7월호, 48쪽)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그분께는 우리의 행동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분께는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습니다. 그분께는 연민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슴이 있습니다. 그분은 실존하십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닮았으며, 그분은 우리의 모습을 닮으셨습니다.”(“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Tambuli*, 1988년 4월, 6쪽).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아는 것은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리그랜드 리처즈 장로(1886~1983), 십이사도 정원회: “육체는 자기의 것이며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바울은 그것은 주님의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 아니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17]고 분명히 말했습니다.”(기이한 업적, 개정판.

[1966년], 380쪽).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요한복음 17:3). ‘...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시는 대로 느끼며, 그분이 지니신 권세를 지니며, 그분이 이해하시는 진리를 이해하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과 같이 되며, 그분과 같은 삶, 즉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 그분은 니파이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제3니파이 27:27)”(“우리 주 구세주”, *리아호나*, 1994년 1월호, 7쪽)

수잔 더블류 태너, 전 본부 청녀 회장: “여러분이 집을 나설 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신 적이 있습니까?]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 단정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을 공손하게 대하며, 그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주는 명찰을 담니다. 성약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를 지상으로 보내실 때, 은유적 표현으로,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게라!’ 라고 권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합당한 자녀로서 행동해야 합니다.”(“하나님의 딸들”,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107쪽).

추가 공부를 위해서는 **욥기 7:17; 교리와 성약 110:2~3; 조셉 스미스-역사 1:17**을 참조한다. ■

행복한 가정을 위한 레시피

일체감, 복음, 가족과의
즐거움—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스웨덴 가족이 충만한 사랑의
표준 안에 배합시키는
재료들이다.

폴 반덴버그
교회 잡지

만 약 여러분이 부엌에서
들려오는 우스꽝스럽고 높은
가성의 노랫소리에 잠을 깨게
된다면 여러분은 분명 약간 혼란스러워하며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1) “여동생이 부엌에서 쿠키를 찾고
있나?” 또는 (2) “내가 혹시 우리 집이 아닌 곳에서
잠이 들었나?” 그러나 당신이 스웨덴 카블린지에
사는 론달 일가에 속해 있다면 전혀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주 고대하며 기다릴 것이다.
노랫소리가 아니라, 가족이 “호텔 아침식사”라고 부르는 이
행사를 말이다.

이사벨 론달(14세)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저는 토요일 아침 식사가 좋아요. 토요일엔
아빠가 늘 아침을 준비하시는데, 정말 맛있어요.”라고 말한다.
론달 가의 다른 아이들도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행복한
목소리로 동의한다.

“우리는 아빠의 노랫소리에 잠을 깨요.”라고
안드레아스(16세)가 설명한다. 남매들 중 몇 명이 자신해서
흥내를 내자 부모인 브라이닐프와 크리스티나를 포함하여 모두가

함께 웃음을
터뜨린다. 론달 가정에서는 웃음
소리가 자주 터져 나온다. 그런 다음 그들은 매주 토요일 아침,
노랫소리 다음으로 풍겨오는 갓 요리한 베이컨과 달걀이 어떻게
가족들을 침대에서 끌어내는지 설명한다. 이 가족은 음식을



나누는 것보다도 단순히 함께 하는 것을 더욱더 즐기는듯하다.

이 가족은 행복한 가정을 위한 레시피의 또 한 가지 재료는 가정의 밤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가정의 밤이 대부분 긴 공과로 이루어졌던 시절이 기억나요.”라고 크리스토퍼(18세)가 장난기 어린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한다.

“저는 지루해서 잠이 들어 버린 적도 있었어요.”라고 당시 5살에 불과했던 안드레아스가 덧붙인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보면 간식이 있었죠.”

론달 형제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론달 자매가 한 시간을 웃도는 공과를 꼬박꼬박 준비하곤 했었다고 설명한다. 그러한 공과는 어린 자녀들이 끝까지 앉아서 듣기에는 너무 어려웠다. 이제 론달 부부에게는 8살부터 23살에 이르는 여덟 명의 자녀들이 있다. 장녀 레베카는 전임 선교 사업을 했으며 현재 미국에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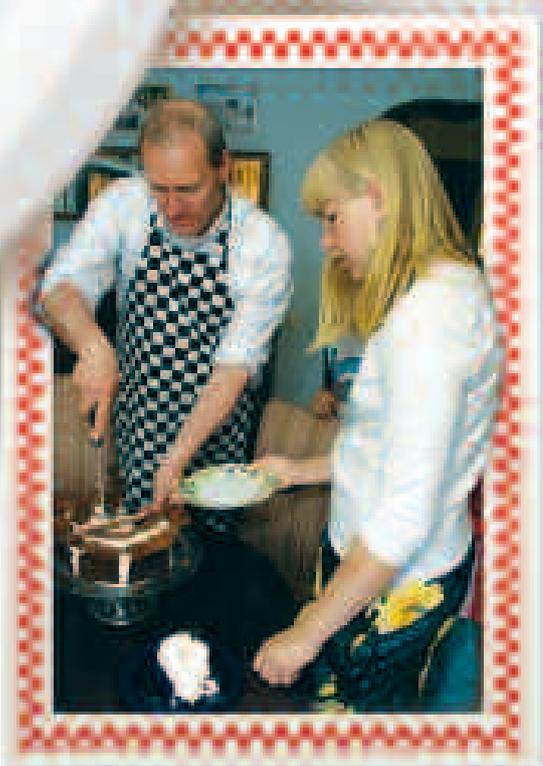
론달 형제와 자매는 가정의 밤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가족들을 불러모으고는 ‘얘들아, 무얼하고 싶니?’ 라고 물었어요.”라고 론달 자매는 말한다. 아이들이 음식과 게임, 찬송가 부르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좀 더 짧기만 하다면 공과도 좋다고 했다. 적절한 재료가 갖추어져 있었지만 적절한 분량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론달 형제의 말은 상황을 잘 설명해 준다. “우리는 재미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론달 자매는 월요일 저녁이 특별하게 시작되도록 평소보다 정성들인 저녁식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그리고 가정의 밤을 위해



자애

열네 살 된 이사벨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는 모로나이서 7장 45절에서 48절까지이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인 자애에 대해 말해 준다. “저는 특히 45절이 좋아요. 그것은 자애와 사랑의 모든 훌륭한 특성들에 대해 말해 줘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애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줘요.”라고 이사벨은 말한다.



론달 가족 사진 촬영: 폴 벤덴버그; 기타 사진 촬영: 존 루크.



앞 못보는 지휘자 게임 방법

열두 살 된 조세핀이 가장 좋아하는 가정의 밤 게임은 쉽고 재미있다. 모두가 크게 원을 그리고 둘러 선 후, 한 사람, 즉 “지휘자”는 눈가리개를 하고 원 안쪽 중앙에 선다. 지휘자는 지휘를 하듯이 손가락으로 원 안의 사람들에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걸으라고 지시한다. 손가락의 방향을 바꿀 때마다 원이 돌아가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지휘자가 두 손을 높이 들면 원은 멈춘다. 그러면 지휘자는 원을 향해 아무 곳이나 가리킨다. 지휘자가 가리킨 사람은 크건, 작건, 우습건, 어떨건, 어떤 소리를 내야만 한다. 소리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지휘자가 알아맞히면 그 사람이 다음 지휘자가 된다. 알아맞히지 못하면 같은 지휘자로 게임을 계속 진행한다.

적당량의 게임과 노래를 추가했다. 또한 공과는 10분 정도로 줄였다. 이러한 배합은 효과적이었다. “아이들이 월요일 밤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모두 정말 좋아했지요.”라고 크리스티나가 말한다.

이제는 자녀들이 성장했으므로 공과에 길이와 깊이가 더해졌다. 로산나(20세)는 이렇게 말한다. “이젠 정말 좋은 공과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음과 다른 여러 가지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 가지 의견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론하는 게 재미있죠. 이제 우리가 토론하고 싶은 것에 관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욱 흥미로워요.” 그러나 음악과 게임과 간식은 여전히 그 레시피, 즉 순서의 일부이다.

“저는 간식이란 게임이 제일 좋아요.”라고 조세핀(12세)은 말한다.

“당연히 간식이란 게임이죠.”라고 크리스토퍼도 따라 말한다.

“저는 노래와 음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라고 로산나는 말한다.

“공과요.”라고 이사벨이 암전하게 말한다. 다른 아이들은 즉각 이사벨을 장난스럽게 놀리기 시작한다. “아냐, 정말이야.”라고 이사벨은 진지하게 말한다.

“저는 가정의 밤 자체가 제일 좋아요.”라고 안드레아스는 말한다. “공과, 노래, 게임, 간식, 이 모든 게 가정의 밤을 재미있게 해 줘요. 공과나 게임이나 노래, 한 가지만 빠져도 가정의 밤은 허전할 거예요.”

“저는 브라이놀프와 제가 가정의 밤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될 때가 정말 좋아요. 우리는 그냥 앉아 있고, 아이들끼리 사회를 보고 공과를 하고

간식도 준비하죠. 아이들이 다 해요. 그게 제일 좋죠.”라고 론달 자매는 말한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론달 가의 레시피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재료는 매주 일요일 교회가 끝난 후 갖는 가족 평의회이다. 그들은 다음 가정의 밤을 위해 각자 해야 할 일을 검토한다. 모든 일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다들 공과에서부터 간식, 경전 구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임무에 대해 기회를 가진다. 그들은 또한 일상적인 가사일과 가족들 각자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다.



가족으로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일요일과 월요일에만 있는 일은 아니다. 자녀들 중 가장 어린 새뮤얼(10세)과 요한(8세)은 둘 다 가족이 함께하는 외출과 소풍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아버지도 동의한다. “우리 모두 어디서든 수영하는 걸 좋아해요. 호수에서든 바다에서든 강에서든 말이죠.”라고 론달 형제는 말한다. 또한



가족의 일체감

“가족은 축복에 대해 감사하고 공통 관심사에 대해 간구하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은 교회 모임과 영적인 가족 모임에 참여하며 함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가족은 함께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가족은 함께 일해야 합니다. ... 또한 가족은 가족 활동을 생각할 때 행복한 경험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함께 오락을 즐겨야 합니다.

“가족은 가족과 개개인에 관한 모든 일들에 대해 함께 상의해야 합니다.

“가족은 함께 식사해야 합니다. 식사 시간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대화하기에 자연스러운 시간입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Parental Leadership in the Family,” *Ensign*, 1985년 6월호, 10~11쪽.

가족들 대부분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연주하기 때문에 함께 밴드를 구성하여 노래하고 음악을 연주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족의 일체감은 론달 일가를 가족인 동시에 가장 가까운 친구로 만들어 주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의지한다. 그리고 서로에게서 힘을 얻는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일 것이다.

론달 가족 일원들은 서로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와드와 스테이크도 강화시킨다. “우리는 스테이크 내의 모든 활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소풍 및 대회에 참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스테이크와 와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참여하도록 격려합니다. 이곳 와드들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 많은 스테이크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을 한자리에 모으려고 합니다.”라고 론달 형제는 말한다. 나이가 된 자녀들은 세미나리에도 참석한다. 론달 부부 모두 세미나리 교사로 봉사한 적이 있다. 물론 그들은

교회의 공과반과 정원회에서도 봉사한다.

세심하게 배합된 이러한 재료들이 바로 이 가족을 이토록 화목하게 해 주는 것들이다. 첫째부터 막내까지, 부모부터 자녀까지,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기에 그들은 함께하기를 좋아한다. 또한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것부터 가정의 밤에서 앞 못보는 지휘자 게임을 하는 것까지, 그들은 함께 할 수 있는 좋아하는 일들이 많다. (추가 기사 참조) “저희 가족에 대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 중 하나는 바로 음악이에요. 우리는 음악 가족이지요. 모두들 노래하는 걸 무척 좋아해요.”라고 론달 자매는 말한다.

그렇다. 론달 가족 모두 노래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노래를 듣는 것, 특히 토요일 아침,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우스꽝스런 가성의 노랫소리를 좋아한다. ■



하나님의 인도하는 손길



여러분이 허락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그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위대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볼프강 에이치 폴 장로
 칠십인 정원회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후에 어떠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직장 또는 직업을 갖고 있겠습니까? 어떠한 교회 부름이 여러분에게 올까요?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한가요?

저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모른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 또한 그만큼 확신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손에 여러분 스스로를 맡긴다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놀라운 경험과 기회를 가져다주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언 3:5~6)

모든 국가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 중 한 사람인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축복하실 만큼 여러분을 염려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는 손길의 이

두 가지 예 모두를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국가 전체를 축복함

제가 성장하는 동안, 독일은 분단 국가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서쪽은 자유롭고 민주적이었으며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동쪽은 소련과 동맹한 공산주의 체제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둘 사이에 장벽과 철조망, 지뢰밭, 그리고 기관총을 든 보초들로 무장된 망루가 눈에 띄는, 동과 서를 가르는 분계선이 있었습니다. 그 분계선 너머 동쪽에는 예배의 자유와 성전의 축복을 갈망하는 많은 충실한 후기 성도들이 간혀 있었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언젠가 예언이 실현됨에 따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마태복음 24:14 참조) 그러나 군대는 너무나도 강해 보였고 통치 세력은 너무나도 무정해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대규모의 국제적 대립 또는 그 외 전 세계적인 재난만이 동독과 폴란드, 그리고 기타 소련의 지배 하에 놓인 다른 나라들이 필요로 하는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스펜서



선

지자들에게
계
말씀하시

고 국가들의 진로를
바꾸시는 바로 그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기꺼이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 행로를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여러분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더블류 김볼 회장님(1895~1985)은 모든 교회 회원들에게 국경의 개방을 위해 기도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독 정부는 동독 내에 성전 건축을 허락했으며, 독일 프라이베르크 성전이 1985년에 헌납되었습니다. 그 후 1988년, 교회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라 동독 정부는 선교사들의 입국을 허가했으며 동독 출신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봉사하는 것 또한 허가했습니다. 1989년 11월, 동독 정부는 베를린 장벽을 개방했으며 장벽은 곧 허물어졌습니다. 동독 정부는 붕괴되었고, 독일은 민주주의 정부 하에 통일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한 많은 원인을 나열하곤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주님이 계셨으며, 주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려 이 국가들의 운명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에 한 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삶을 인도함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며 여러분의 축복과 다른 이들의 축복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획하실 것입니다. 단, 여러분이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받아들이는다면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제 인생을 계획해 주셨고 제가 그분을 우선시할 때, 제게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로 저를 축복해 주시리라는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수 차례 목격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인구는 60,000명이었지만 후기 성도는 저희 가족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따라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자주 영을 느꼈으며,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복무 중, 저는 물몬경이 참됨을 스스로 알고자 하는 강한 소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딴 곳으로 가서 물몬경이 권고하는 대로 했습니다.(모로나이서 10:4~5 참조) 저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코 잊지 못할 마스함과 위안, 평화와 커다란 행복의 영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군복무 후, 저는 서독 정부 하에서 군사 행정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는 매우 어려웠지만, 저는 재정, 부동산, 법적 문제 등에 관한 광범위한 배경 지식을 얻었습니다. 저는 또한 지방부 회장단에서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제 동기들은 일요일에 공부하느라 바빴지만 저는 교회 임무를 수행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주님의 약속은 참되며, 여러분은 그 약속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동기들만큼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정부를 위해 8년간 일했습니다. 저는 평생직장과 높은 연금을 보장받았습니다. 제 인생은 제 앞에 펼쳐진 탄탄대로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감리 감독단은 제게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유럽의 지역 대표로서 기꺼이 봉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안정적인 직장과 향후의 연금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함께 기도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다르지만 매우 축복된 길로 나아갔습니다.

정부를 통해 받은 훈련은 제게 주어진 새로운 책임을 수행하면서 다루게 된 많은 일들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새로운 일을 받아들임으로써 저는 이후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정부를 위해 일했다면 저는 결코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허락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그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결과로 위대한 축복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분께 기도로 의지한다면,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직업과 같은 중요한 일에서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상의 문제에서도 축복해 주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이러한 일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하루하루 받는 축복

제가 지부 회장으로 봉사하며 연례 십일조 보고서를 작성하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날은 아름다운 겨울날이었고, 제 아내는 저와 함께 산책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부 관리로 일하면서 재정 업무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이 작업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숫자를 맞추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맞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시도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저는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일어섰을 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금 영수증 파일의 특정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보아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시 영수증은 풀을 붙여 한 묶음으로 묶곤 했는데, 저는 영수증 두 장이 함께 붙어서 한 장으로 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도전 과제는 제가 오래 전에 경험한 것처럼 평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컴퓨터를 위한 새로운 고속 모뎀을 구입했는데, 설명서대로 모든 부품을 연결했지만 모뎀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의 문제해결법을 살펴보고, 모든 부품을 다시 연결하고, 제조사의 안내 데스크에도 전화해 보았지만 모뎀은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모뎀을 샀던 곳으로 가져가서 시험해 보기까지 했지만, 그곳에서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모뎀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도하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뎀이 작동했으며, 아직까지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 드린 사건들 중에, 어떤 일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떤 일은 제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어떤 일은 다른 일들과 비교했을 때 미미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국가들의 진로를 바꾸시는 바로 그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기꺼이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 행로를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여러분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분은 여러분 인생의 일상적인 어려움의 해결에도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알고 사랑하시며 그분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



지 금 이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젊은 후기 성도가 된다는 것은 지금 당장 교회에서 봉사하고 인도해야 함을 의미한다.

제네사 클라워드

모든 사람이 개종자인 지역에서 교회 회원으로 지내는 것을 상상해 보라. 선교사들이 이 지역에 파견된 지는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17세가 되자, 여러분은 월계만 회장이 아닌 초등회 회장으로 부름 받았다.

오크사나 페르사노바에게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다. 우크라이나 크멜니스키에 살고 있는 오크사나는 2006년,

그곳에서의 선교 사업이 처음 시작될 당시 가장 먼저 침례 받은 사람들 중 하나였다. 침례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그 도시에서 모임을 갖는 작은 그룹의 초등회 회장으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했고, 그분이 저의 구주이며 몰몬경이 참되다는 간증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오크사나는 말한다.

“저는 만약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을 번역했고 몰몬경이 참되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크멜니스키에 선교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녀에게 복음에 대해 더 많이 가르쳐 주었다. 4년 동안, 그녀는 복음을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복음원리에 따라 생활하면서 선교사들이 그곳에 올 수 있도록 기도했다.

2006년 3월, 마침내 선교사들이 그곳에 왔다. 오크사나와 그녀의 친구인 사샤 쿠바토브는 크멜니스키에서 맨 처음으로 침례 받은 두 사람이다.

사샤가 다른 도시에서 교회 회원이 된 그의 누나들에게서 몰몬경을 받은 건 그가 불과 열네 살이었을 때이다.



받았다.

이 지역에 있는 다른 십대 청소년들도 오크사나와 비슷하다. 그들은 부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제 막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기 시작한 곳에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크멜니스키와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젊은 개종자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굳건한 간증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교회를 강화하고 있다.

복음을 기다림

오크사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친구에게서 몰몬경 한 권을 받고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니파이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읽고 있을 때, 강한 느낌이 제게 임했고, 그분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때 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것이 참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간증을 갖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라고 그는 인정한다.

“저는 선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몇 년 후 장로들이 그곳에 왔을 때, 그들은 사샤의 모든 질문에 답해 주었고 그가 침례와 확인을 받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왔다.

“제가 침례의 물가로 나아갔을 때, 저의 모든 의심들은 사라졌고, 저는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이며 이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달라질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의 인생은 달라졌다. 가정복음교사로서 사샤는 그가 지닌 신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봉사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침례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사샤는 어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침례를 주었다. 이제 온 가족이 교회 회원이 되었으며, 사샤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을 고대하고 있다.

“저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기 위해 선교사 추천서를 준비하고

맞은편 페이지: 개종자인
오크사나 페르사노바는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매우 좋아한다.
리아호나를 들고 있는
체르니히브의 어린이들.
왼쪽: 사샤 쿠바토브는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현재 러시아
에카테린버그 선교부로서
선교 사업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아래: 르비브
시 센터

“저희 누나들은 제 나이가 열네 살, 즉 조셉 스미스가 첫번째 시현을 본 나이와 같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조셉은 어린 나이에 큰 축복을 받았으며 저 또한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그는 몰몬경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니파이후서에 이사야의 말씀이 나오는 부분까지 읽다가 그만두었다. 1년 후, 그는 몰몬경을 다시 읽었는데, 단지 역사적인 기록으로서 읽은 것이지, 그 책이 참된지를 알고 싶어하는 소망은 없었다.

하지만 그가 세 번째로 몰몬경을 읽었을 때, 사샤는 그 책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실들보다는 그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더욱 집중했다.





위: 열여섯 살에 침례 받은 후, 미샤는 그의 확인 의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제 머리 위에 손이 얹혀졌을 때 권능이 제게 임하는 놀라운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오른쪽: 미샤는 침례 받고 6개월 만에 그의 어머니인 올가에게 침례를 주었다. 아래: 침례식에서 선교사와 지부 회원 및 가족들은 올가를 지지했다.

맞은편 페이지: 유리 보나로비치 형제는 지부 선교책임자와 지부 서기로 봉사하는 일을 매우 좋아한다.



있습니다. 그분의 사업은 계속해서 전진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름

미샤 수코노소브는 체르니히브에서 선교사들과 함께 영어 회화에 참석한 것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으로 인도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영어 회화반에 참석한 지 몇 달 후에 바뀌게 되었다.

미샤는 선교사들이 그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느꼈던 느낌을 매우 좋아했다. 그리고 마침내 함께 교회에 참석하자는 선교사들의 권유를 받아들였을 때, 그는 똑같은 느낌을 교회에서 느끼게 되어 놀랐다.

마침내 장로들 중 한 명이 미샤에게 그가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권유했다.

미샤는 그의 가족의 전통과 반대되는 길을 간다는 것이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임을 알고 있었다. 우크라이나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 그곳에서 가장 유력한 교회를 다닌다. 그의 가족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미샤의 어머니는 그가 침례 받기까지 몇 년 더 기다리기를 원했고, 그는 16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 동안에 그는 매주 교회에 참석했고 지부 반주자로 봉사하기 시작했다.

“그 부름은 제가 매주 교회에 참석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오지 않으면 반주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죠.”라고 미샤는 말한다.

마침내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을 때, 미샤는 2006년 7월 1일 강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때만 해도, 그는 가족들이 그의 모범을 그토록 빠르게 따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의 어머니인 올가는 아들의 새로운 종교에 대해 좀 더 알아 보기 위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가 교회에 자주 나오자 지부



회장은 미사가 지휘를 할 수 있도록 그녀에게 성찬식에서 오르간을 연주해 줄 것을 부탁했다.

6개월 동안 그녀의 아들을 포함한 회원들의 간증을 들으며, 그녀는 자신의 간증을 키울 수 있었다. 2006년 12월 미사는 그의 어머니에게 침례를 주었다.

올가는 아직까지도 매주 오르간을 연주한다. 이제 17세인 미사는 지부 회장단을 돕고, 지부 선교사로 봉사하며, 성찬식에서 찬송 지휘를 하느라 바쁘다.

“저는 교회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교회는 저를 돕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신앙을 찾음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인 르비브에서, 유리 보나로비치와 그의 가족은 그가 10살 때부터 진리를 찾기 시작했다. 수년 동안 그들은 여러 다른 교회들을 방문했다. 그때, 그의 삼촌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 지부로 초대했고, 유리의 부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처음에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저 스스로 진리를

찾았습니다.”라고 유리는 말한다.

하지만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던 그의 부모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가 안식일 모임뿐만 아니라 영어회화 및 청소년 모임에 참석하도록 권유했고, 마침내 선교사들이 그를 직접 영어 회화반에 초대했다.

“저는 그들에게 싫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유리는 말한다. 그래서 그는 영어 회화반에 갔고, 그런 다음 교회에 갔다. 마침내 그 역시 침례 받게 되었다.

“그날 이후 저는 많은 경험들을 통하여 현재의 제 모습을 만들어 준 간증과 품성들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을 봅니다. 때로는 그것이 유혹과 친구들의 압력으로 인해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나중에 우리는 순종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이제 17세인 유리는 르비브 시의 지부 선교책임자 및 지부 서기로 봉사하고 있다.

“저는 교회와 교회가 저에게 해 준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쇠막대를 굳게 잡고 그것을 결코 손에서 놓지 않기를 권고합니다.”라고 유리는 말한다. ■



리아호나 발행일 1년 전: 기획이 완성된다. 기사들을 선별하거나 작성한다.

발행일 10개월 전: 편집위원, 보조조직 회장단 혹은 총관리 직원들에 의해 작성된 기사들이 편집된다. 독자들의 기고문도 이 단계에서 편집된다.

여러분은 리아호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해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잡지를 볼 때 누가 이 기사들을 수집하는지, 그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 출판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출판물들이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회 잡지 편집인들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봅시다.

여러분이 이 잡지를 읽고 있을 때, 앞으로 1년 후에 나올 잡지에 대한 기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면서 잡지 편집인들은 몇몇 칠십인 정원회 회원들의 직접적인 지시를 따르게 되는데, 그들은 교회 회원들을 강화하기 위해 다룰 필요가 있는 주제들에 대한 십이사도 정원회와 제일회장단의 권고 사항들을 전해 줍니다. 잡지 편집인들은 그들의 권고를 바탕으로 기사를 선별하거나 작성하게 됩니다.

교회 잡지

리아호나와 엔사인의 관리 편집인들이 다가오는 발행본에 들어갈 기사들에 대해 의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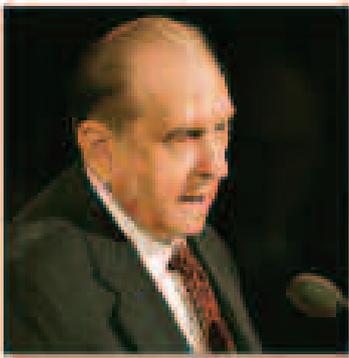
교회 잡지의 편집인은 대부분이 신문방송학이나 영문학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작문, 편집, 혹은 출판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발행일 9개월 전: 지명된 위원회와 총관리
역원들이 기사들을 검토한다.

발행일 8개월 전: 기사들을 잡지의 어느 부분에 넣을지 결정한다.(*프렌드*,
뉴이라, *엔사인*의 경우에는 두세 달 후에 그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진다.)

제 작

잡지 기사의 네 가지 주요 출처



선지자 및 총관리 역원, 혹은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이나 저술이 기사로
바뀐다.



칠십인 정원회 회원들과 보조조직
회장단이 교회 학습과정을 돕기 위해
기사를 쓴다.



교회 잡지 편집인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
조사하거나 특정 지역의 후기 성도들을
방문한 후 그에 대한 기사를 쓴다.



여러분과 같은 독자들이 기사를 쓴다.
여러분의 기고를 통해 독자들은 이
잡지에서 전 세계 후기 성도들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발행 기획

기획은 언제나 51개의 언어로 출판되고 있는
리아호나 잡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매달
21개의 언어로 출판되고 있으며, 구독자가 적은
언어로는 *리아호나*를 일 년에 네 번 또는 여섯 번
받아볼 수 있고, 구독자가 아주 적은 언어로는 일
년에 한두 번 또는 세 번 정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리아호나*에는 성인,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기사와 함께 특정 지역에 있는 교회
회원들의 뉴스를 포함한 지역소식 기사가

포함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가능한 한 *리아호나*에
신는 내용들을 영어로만 출판되는 교회
잡지인 *엔사인*, *뉴이라*, *프렌드*에 나오는
내용들과 일치시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매달 *리아호나*의 발행을 기획할 때,
편집인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 세계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사가 어떤
것인지 알고자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별된 기사는 교과 과정부의 고문인
총관리 역원들에 의해 검토됩니다.

사진: 폴링, 헬든 시 언더슨

독자들이 누구인지를 이해함

성인,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기사를 쓰고 편집하는 직원들은 독자들간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기사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어린이들이 6세에서 12세 사이에 지적 능력 및 정서적인 성장 부분에 큰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편집인들은 이러한 변화가 또한 점점 성숙해지는 시기의 십대 청소년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인들을 위한 기사를 쓰는 사람들은 나이, 인생의 단계, 결혼 여부에 있어서 독자들에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에서, 세계 전역에 있는 독자들의 필요사항을 다루는 일과 그 일의 복잡성은 부담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나의 발행본으로 모든 독자들의 필요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매년 발행하는 잡지들을 통해 각기 다른 인생의 단계에 있는, 혹은 같은 연령층에 속한 독자들 모두에게 유용하고 영감을 불어넣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행일 7~8개월 전: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기사들이 위치할 지면을 구상하고 계획한다. 삽화작가와 사진작가들에게 그림이나 사진을 의뢰한다.

그래픽 디자인과 제작



리아호나와 엔사인의 편집인들은 다가오는 발행본에 쓰일 기사들의 배치에 대해 논의한다.



디자이너들은 기사가 다루고 있는 영적인 원리들을 가르치는 것을 돕기 위한 형식 및 그림이나 사진들을 선택한다. 이때, 리아호나의 미술책임자는 편집인들과 디자이너들에게 제안된 지면 배치를 보여준다.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기사의 지면을 배치할 때, 필요할 경우 전문 화가나 사진가에게 삽화나 사진을 의뢰한다.

내용 편집

일 년 내내, 잡지 직원들은 다가오는 몇 개월치의 리아호나 발행을 준비합니다. 그러한 준비는 초기 기획에서부터 교정작업, 다음 달 발행본에 대한 인쇄작업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인쇄 센터는 영어로만 출판되는 잡지들과 대부분의 리아호나 번역판을 인쇄합니다) 기사를 쓰고 편집하는 일은 각각의 잡지 발행일로부터 대략 8개월 전에 완성됩니다. 하지만, 이후 서너 달 동안 교회 잡지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 생기면, 편집인들은 계획한 기사들을 빼고 새로운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모든 교회의 잡지들은 적어도 한 단계 이상의 내용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기사가 편집된 후에 지명된 검토자들이 그것을 읽는데, 여기에는 몇몇 칠십인들도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검토를 마친 후, 승인된 내용들은 그래픽 디자이너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은 지면의 배치를 계획합니다. 그들은 기존의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그림이나 사진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면서 원문이 차지하는 공간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리아호나의 지면들은 각 기사마다 여분의 공간을 계획해 두어야 합니다. 디자인이 끝나면, 각 지면들은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들과 한 명 이상의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부터 검토를 받게 됩니다.

잡지를 만드는 과정에는 리아호나 기사를 번역하기 위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번역사들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교회 회원들입니다. 그들은 전자 메일로 교회 본부와 리아호나 기사를 주고 받습니다.

잡지 전달

최종적으로 디자인된 잡지 지면의 시험 인쇄본이 교정작업을 위해

발행일 6개월 전: 여러 총관리 직원들이 리아호나 기사의 지면 배치를 검토한다. 기사를 번역사들에게 보낸다.

발행일 6개월 전: 영문판 리아호나의 컴퓨터 파일이 본 인쇄 준비를 위해 시험인쇄 담당 직원에게 당도하기 시작한다. 다른 언어판들은 번역 및 지면 배치 후 시험인쇄 작업을 한다.

맨 오른쪽: 이메일을 통해 제작자들은 전 세계에 있는 번역사들과 교류한다. 오른쪽: 51개나 되는 언어로 잡지를 만드는 작업은 컴퓨터를 이용한 지면 배치 작업과 각 언어의 시험 인쇄판을 검토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교회 잡지 디자이너들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어로 된 각 기사에 대한 지면 배치 작업을 한다. 제작자들은 그 후, 번역된 원문을 가지고 지면 분할 작업을 한다.

교회 잡지의 디자이너들은 대부분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디자인 스튜디오에서의 수년간의 경험과, 다수의 컴퓨터 디자인 및 제작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발행일 2개월 전: 인쇄를 시작한다.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에 있는 인쇄센터에서는 리아호나 인쇄 후 프렌드, 뉴이라, 엔사인을 인쇄한다.

발행일 1~2개월 전: 몇몇 언어의 리아호나가 해당 국가에서 인쇄된다.

솔트레이크시에 위치한 교회 인쇄센터에 있는 운전기는 종이 양면에 8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 인쇄할 수 있으며, 그 후 인쇄된 종이를 자르고 접어 "전지"(접었을 때 낱장의 형태를 띠게 되는 여러 페이지가 인쇄된 넓은 용지)로 만들 수 있다. 운전기는 한 시간에 평균 30,000 번을 인쇄한다. 그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4시간 가동되며, 4명의 작업자가 교대로 근무하며 작업한다.

운전기는 24,380미터(80,000피트), 즉 24킬로미터(15마일) 길이의 1,270킬로그램(2,800 파운드)짜리 종이를 인쇄한다. 2008년 6월호 엔사인을 인쇄하는 데에는 105 롤의 종이가 필요했는데 이는 대략 2,560 킬로미터(1,590마일)이다. 아래에 보이는 종이는 인쇄기를 빠져 나와 건조기를 통과하는 중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종이가 흐릿해 보인다.

이들 인쇄기사들은 16 페이지가 들어 있는 전지를 펼쳐 "정합"(인쇄판이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여부와 색의 조화를 검사한다. 인쇄기는 단지 4개의 색: 즉 사이안, 마젠타, 노랑, 검정만을 조합하여 잡지에 있는 모든 색상들을 만들어 낸다.

교회 인쇄센터에 있는 인쇄기사들은 보통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의 그래픽 미술 훈련 기초과정들을 마친 사람들이다.

리아호나 언어(2008년)

알바니아어	피지어	한국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핀란드어	라트비아어	스페인어
비슬라마어	프랑스어	리투아니아어	스웨덴어
불가리아어	독일어	마다가스카르어	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	그리스어	마셜제도어	타이티어
세부아노어	아이티어	몽고어	타밀어
중국어	힌디어	노르웨이어	텔레구어
크로아티아어	헝가리어	폴란드어	타이어
체코어	아이슬란드어	포르투갈어	통가어
덴마크어	인도네시아어	루마니아어	우크라이나어
네델란드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우르두어
영어	일본어	사모아어	베트남어
에스토니아어	키리바시어	신할라어	

발행일 1~2개월 전: 잡지의 인쇄, 포장 및 배부가 시작된다. 잡지들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가장 먼 지역부터 보내진다. 많은 국가에서 지역의 우편 체계를 통해 잡지가 배달된다. 몇몇 국가에서는 와드나 지부를 통해 배부된다.

여러분의 기사를 기고함

회원들은 종종 교회 잡지에 어떻게 기고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여러분은 거의 모든 주제에 관해 작성한 원고를 우리에게 보낼 수 있지만, 교리나 경전의 의미를 가르치는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총관리 역원에 의해 쓰여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잡지에 기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적으로 지니고 있는 영적 생각이나 경험에 대해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고, 경험한 것에 대하여 쓸 때, 여러분의 글은 진실성과 신뢰감을 전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쓴 글은 많은 나라와 문화에 속해 있는 독자들에게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쓰기 전에 여러분은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될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와 연락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여러분의 글의 주제가 잡지 편집 계획에 들어맞는지의 여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 해 줄 수 있습니다. 교회 잡지부의 우편주소는 "Liahona 또는 Ensign, New Era, Friend,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liahona@ldschurch.org 와 같이 잡지의 이름을 쓴 후 뒤에 @ldschurch.org를 붙이면 됩니다.

인쇄 및 배부



인쇄되어 나온 전지는 페이지의 차례를 정렬해 주는 기계를 통과하고, 겉 표지가 추가된 후, "중철"(본문과 표지를 함께 철사로 집어주는 것) 된다. 그 후 종이의 여백 부분을 잘라낸다.



완성된 잡지는 우편으로 보내거나 선적하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중앙배부센터에서 포장된다.



다른 교회 자료들이 함께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서, 직원이 선적을 위해 포장된 잡지들을 검사한다.

편집인들에게 전달됩니다. 이 원고들은 영문판 리아호나는 발행일 5개월 전에 인쇄 센터에 전자메일을 통해 보내지고, 그 외의 언어로 출판되는 리아호나 및 영문판 엔사인, 뉴이라,

프렌드는 발행일 2개월 전에 보내집니다. 리아호나의 뉴스란은 발행일 2개월 전에, 그리고 엔사인의 뉴스란은 발행일 1개월 전에 인쇄에 들어갑니다.

인쇄된 잡지들은 꾸러미로 포장되어 현지 우편 체계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배부됩니다. 미국 내에서는 미국 체신부를 통해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잡지는 먼 지역으로 먼저 보내지며 유타에 있는 독자들에게는 가장 나중에 전달됩니다. 잡지는 발행되는 달의 첫째 주 일요일까지 도착되도록 계획되지만 이것은 종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에 이 잡지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사들은 육체적인 건강, 재정 혹은 우리 모두가 이 필멸의 인생에서 다루어야 할 기타 여러 주제들에 대해 다루지만, 그것들의 주된 목적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읽은 기사들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러한 의견들을 듣고 싶습니다.(오른쪽에 있는 우리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필요사항들에 대해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기쁜 마음으로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독자들에게 좀 더 나은 봉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은 모두,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익이 될 것입니다. ■

드라이버를 든 사마리아인

하이디 바틀

나는 장미반 공과를 마친 후 내가 가져온 물건들을 챙기고 있었고 남편 계리는 공과실 뒤편에 서서 우리의 한 살배기 아들을 안고 있었다. 그때 우리의 세 살짜리 아들 잭은 살며시 우리의 곁을 지나 혼잡한 복도 속에서 누군가의 뒤를 따라 집회소 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나와 남편은 서로가 잭을 데리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몇 분이 지나서야 우리 아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잭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아이가 복도 맞은편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뭔가가 잘못되어 있었다. 아이는 빨강계 달아오른 두 뺨 위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오른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근심에 찬 얼굴을 한 채 우리 아이를 데려다 주신 분은 다름아닌 우리 감독님이었다. 순간 나는 죄책감이 들었다. 아들이 다쳤는데 나는 곁에서 도움을 주지도 못했다.

감독님은 잭의 다급한 울음 소리를 듣고 곧장 아이에게로 달려갔던 것이다. 감독님은 잭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직감했지만 그 해결책은 쉽게 보이지 않았다. 잭의 손가락이 그만 육중한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낀 것이었다. 문을 열려고 해도 닫으려고 해도 상처만 더욱 심해질 뿐이었다. 문이 움직일 때마다 손가락은 점점 더 죄어져만 갔고 손이 문틈 속으로 들어가면서 잭은 큰 고통을

느꼈다.

감독님과 와드의 한 부부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잭의 손가락을 빼낼 방법을 강구하고 있을 때, 우리와 한 건물을 쓰는 다른 와드의 한 형제님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드라이버를 꺼내어 문과 문틀 사이에 끼워넣었다. 그런 후 드라이버를 지렛대 삼아서 틈을 벌린 후 잭의 손을 빼내는 데 성공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그 형제님은 그날 아침에 일요일 교회 모임에 참석할 준비를 하다가 엉뚱하게도 교회에 드라이버를 가져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 느낌이 너무나도 강하고 분명해서 그는 양복 바지 주머니에 드라이버를 넣은 것이었다.

하늘의 영감을 받은 이 친절할 봉사의 행위는 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나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찼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선한 형제님이 영의

그 형제님은 일요일 교회 모임에

참석할 준비를 하다가 엉뚱하게도 교회에 드라이버를 가져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속삭임에 따라 행동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세 살 난 아들을 보살펴 주셨다. ■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폴 비 해치

얼마 전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서 기초 비행 훈련을 마친 나는 몇 시간의 단독 비행을 한 후 비행 자격증을 취득했다. 나는 나의 첫 단독 비행으로 애리조나 주를 횡단하게 되었다. 이것은 피닉스에서 출발하여 투손을 경유한 후 다시 피닉스로 돌아오는 두 시간짜리 항로였다.

나는 지상으로부터 3,000미터 상공으로 홀로 날아올라 구름과 산맥, 골짜기와 사막의 아름다운 절경을 내려다 보리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오른 나머지 내 자신의 부족한 경험과 내 앞에 도사리고 있을 위험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나는 기상 조건을 확인하고 비행 계획서를 제출한 후 무전기와 나침반을 비롯한 기본 항법 장치들을 켜졌다. 이 단계의 비행 훈련에서 보통 그렇듯이, 나는 아직 고급 항법 장치를 다루는 훈련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비행하게 될 기체는 여차피 구식 비행기인 까닭에 육안 관찰 없이 비행할 수 있는 복잡한 고급 장비들은 탑재하고 있지도 않았다.

나는 가슴을 졸이며 단발 엔진을 장착한 나의 작은 노란색 단엽기를 이륙시켰다. 그러나 피닉스에서 투손까지의 운항은 일단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나는 새로 익힌 비행 기술에 스스로 감탄하였다.

목적지까지 단 190km를 남겨둔 나는 들뜬 기분으로 오후 늦게 투손에서 자신 있게 이륙하여 피닉스를 향해 나아갔다.

그러나 공중에 몸을 맡긴 지 얼마 안 되어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 때문에 비행기의 고도 조절이 매우 어려워졌다. 순식간에 모래 폭풍에 휩싸인 나는 더 이상 전방의 시야를 확보할 수가 없었다. 비행기는 사납게 좌우로 요동치며 제어력을 잃었고 나는 정신이 혼미하여 방향 감각을 잃었으며, 위험하리만큼 카탈리나 산줄기에 바짝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다.

극심한 공포 속에서 나는 나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나는 약혼을 했고 다음 달에 애리조나 주 메사 성전에서 결혼할 예정이었다. 나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명예롭게 귀환했으며 언제나 계명을 지키고 성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지금보다 하늘의 도움이 더 절실히

필요했던 적은 없었다. 절박함 속에서 나는 조용히 기도를 드렸다. 그 즉시 성신이 내게 속삭였다. “너의 무전기와 나침반과 계기판에 의지하고 고도를 낮추어라.”

나는 그 즉시 백여 미터를 하강하였다. 시야는 여전히 형편없었으나 발 밑에 도로와 기차길이 있는 것을 어렵듯이 볼 수 있었다. 악몽과도 같은 두 시간의 사투 끝에 계기판을 활용하고 눈에 띄는 표지물들을 따라 피닉스 공항에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다.

나는 성신의 인도와 시편에 담겨 있는 다음과 같은 약속에 대해 언제나 감사할 것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시편 57:1) ■

그 즉시 성신이
내게
속삭였다.
“너의 무전기와 나침반과
계기판에 의지하고
고도를 낮추어라.”





소년의 두 렘돈

나탈리 로스

나의 선교사 동반자와 함께 어디서 전도를 할 것인가를 의논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한 여성이 이제 막 집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그녀가 분명히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집에 들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였던 그곳에서는 하루 일과 중 점심 때에 시에스타라 불리는 낮잠 시간이 시작되면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기 때문이다. 나의 동반자는 어느 새 이미 그녀에게 복음 원리를 가르치고 있었으며 나 역시 그 메시지가 참되다는 간증을 했다.

나르다는 우리가 전한 메시지를 흥미롭게 들었으며 돌아오는 주에 또 오라고 했다. 이윽고 우리가 나르다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다섯 자녀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르다와 그녀의 남편 모두 변변한 돈벌이가 없었으며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매우 궁핍한 처지였다.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그 누추한 집 바닥에는 타일도 없었고 수도 시설도 없었으며 벽이라고는 영성한 못질로 이어

만든 판자뿐이었다. 작은 난로 하나가 그들의 유일한 난방 기구였다.

그들의 형편은 어려웠지만,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열망에서 만큼은 부자였다. 나르다는 성경을 사랑하고 열심히 공부했으므로 자신의 자녀들도 그와 같은 토대를 갖기 원했다. 열두 살 난 아들 크리스티안은 특히나 선교사 토론을 듣기 좋아했다. 우리가 그 가족에게 물문경을 한 권 주고 간 후 크리스티안은 서둘러 첫 몇 서를 읽어내려 갔다. 나르다의 남편 역시 관심을 갖고 있는 듯했으나 소심하여 침실에서만 들었다.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금식 헌금과 십일조에 관해 가르치기를 주저했다. 좀 더 큰 신앙을 요하는 복음의 원리들을 가르치기에 앞서 먼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회복에 대해 굳건한 간증을 갖기를 바란 것이었다. 그렇지만 큰 아이들이 이미 물문경을 읽고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으므로 그들은 우리가 답을 해 주어야만 하는 질문들을 했다.

크리스티안이 물었다. “자매님, 물문경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금식이란

말을 많이 해요. 금식이 무슨 뜻이죠?” 우리는 금식에 관하여 가르치고 그 중요성에 대해 간증한 후 이 가족이 그 계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다.

얼마 후 크리스티안은 우리에게 자신의 간증을 전해 주었다. “한번은 엄마가 사탕을 사라고 돈을 조금 주셨어요. 그런데 가게 쪽으로 걸어가다가 자매님들이 가르쳐 주신 금식이 생각나서 한 번 해 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제게는 20센타보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전 금식을 하고 그 20센타보를 금식 헌금으로 내기로 했어요.”

나르다는 그런 하찮은 금액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크리스티안을 말리려고 했지만 크리스티안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자 했으며 작으나마 자신이 가진 것을 바치고 싶어했다. 몇 주 후 크리스티안을 비롯한 세 명의 자녀가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그들의 부모인 나르다와 그녀의 남편도 교회 회원이 되었다.

나는 금식 헌금을 낼 형편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면 언제나 크리스티안과 그의 충실한 신앙을 기억하고서 내게는 바치고도 남은 만한 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아이의 헌금은 가난한 과부의 두 렘돈 이야기를 상기시켜 준다. (마가복음 12:42~44 참조) 작은

나는 금식 헌금을 낼 형편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면 언제나 크리스티안과 그의 충실한 신앙을 기억하고서 내게는 바치고도 남은 만한 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액수였을지는 몰라도 크리스티안은 기꺼이 바쳤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

예수님께서 정말로 아메리카 대륙을 방문하셨을까?

카를로스 르네 로메로

1960년에 나는 어느 연회에서 한 젊은이를 만났다. 그는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아메리카 대륙을 방문하셨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나는 그 사실이 놀라웠고 그것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알고자 하였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살고 있던 고장인 엘살바도르의 산미구엘에서 여러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여러 종파에 문의도 해 보았다.

나는 3년간 부지런히 찾아 다녔으나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여러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아메리카 대륙을 방문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언급하면 그들은 내가 필시 누군가에게 속은 것이 분명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정보를 찾아보려는 나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결국 난 그들의 말이 옳다고 인정하고 말았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두 선교사가 나의 집에 찾아와 우리 가족에게 전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 즉시 나는 예전에 품었던 나의 궁금증을 기억해내며 그들에게 물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메리카 대륙을 방문하셨다는 사실에 관하여 혹시 아십니까?”

그 중 한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나의 마음과 정신은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 찼으며 나는 다시 물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아시나요?”

그 선교사는 자신의 가방 속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며 말했다.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이 책, 물문경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이 첫 번째 토론을 통하여 내게 가르쳐 준 내용들은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과 독생자에 관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시현에 믿음이 가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는 물문경에 큰 흥미를 느꼈고 선교사들은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 가르침을 주었다.

어느 날 오후 장로들이 내게 물었다. “우리가 형제님께 가르쳐 드린 내용이 참되지에 관하여 기도해 보셨습니까?”

나는 기도해 보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노라고 대답했다.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라고 그들은 말했다.

나는 며칠 밤에 걸쳐 물문경을 읽으면서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읽고 그것이 참되다고 믿었으나 조셉 스미스의 시현만은 여전히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내 마음속의 갈등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홀로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열었다. 나는 하나님께 그분께서 진정으로 조셉 스미스에게 모습을 드러내셨는지 꼭 알고자 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그러하셨다면 나는 이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드렸다.

다음날 아침 일찍 눈을 뜬 나는 성신을 통하여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 나의 정신은 맑았고 나의 마음은 평화로 가득 찼다. 그때 이후로 나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며 물문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아메리카 대륙을 방문하셨다는 것을 안다. 나의 영혼은 성신의 능력으로 확실히 알게 된, 이 놀라운 지식에 기뻐한다. ■

애독자 편지

이러한 영적인 경험들을 통하여 저는 이 잡지에 담긴 메시지를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으며 제 사촌에게 잡지를 정기구독할 수 있도록 선물했습니다. 제 사촌 역시

이 잡지를 사랑하게 되었으며 언제나 열심히 읽고 있다고 합니다. *리아호나*를 통하여 제 사촌 역시 성약을 맺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외국에 살고 있는 저의 친구이자 스승이신 분에게도 *리아호나*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분 역시 이 잡지를 좋아하고 계속해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그분이 훗날 언젠가는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페벨로페 비 우드워드, 미국 텍사스 주

연차 대회의 영

리아호나 연차 대회 특집호를 받을 때마다 저는 매 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합니다. 저는 사진들 속에 담긴 여러 사람들의 얼굴 표정과 연차 대회의 여러 광경들을 보는 것이 즐겁습니다. 저는

이를 통하여 연차 대회 진행 중에 세계 방방곡곡에 임재하는 영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모두가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연차 대회 특집호는 언제나 제게 미소를 짓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게 *리아호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예지, 대한민국

정직한 일라이어스

저희가 *리아호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실 겁니다. 저희 아들 일라이어스(당시 두 살)는 2007년 3월호에 실린 “정직한 모건”이라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여러 번 읽어주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정확하게 외워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앞으로도 그런 짧은 이야기들을 계속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리아호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으며, 특히 뉴스와 각종 기사들과 제언들을 즐겨 읽습니다. 훌륭한 영적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소냐 피르겐, 독일



가장 훌륭한 결정

지난 2005년 12월에 교회 회원인 친척 몇 분이 콜롬비아에 사는 저희 부부를 방문하셨습니다. 집에 돌아가시며 저희 삼촌께서 제게 두 가지의 값진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물몬경 합본이었으며 또 하나는 오래된 *리아호나* 잡지 몇 부였습니다.

저는 10월 연차 대회 말씀이 실려 있었던 2004년 11월호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교회 현황”이라는 글과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님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이라는 말씀을 읽었으며 이 훌륭한 분들의 간증에 감화받아 물몬경과 성경도 읽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놀랍고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훌륭한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된 것입니다.

에드가르 엔리 무노즈 포르라스, 콜롬비아

토대를 마련함

*리아호나*에 대한 저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영감에 찬 기사들을 매일 숙독하며 저의 간증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성신은 기사들의 내용이 참되다는 사실을 누누이 제게 확신시켜 주었으며 제 마음을 감사로 채워 주었습니다.



애독자 편지는 liahona@ldschurch.org 또는 다음 주소로 보내주시시오.

Liahona, Comment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내용은 길이 조정과 명확성을 위해 편집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



복음이 주는 선물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아이어링 회장이 복음을
나눌 것을 권고함.

토 요일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장을 보는 날입니다. 가나, 에콰도르, 그리고 필리핀 제도에서는 사람들이 수확한 농작물과 수공예품들을 읍내에 내다 팝니다. 그들은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서로 담소를 나누곤 합니다. 그 중에는 후기 성도들도 끼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세계 어느 곳에서 들을 수 있는 대화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후기 성도들에게는 다른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말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에서도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은 관심을 보이면서 주의 깊게 경청합니다.

이야기가 몇 분 이상으로 길어지면, 대화는 양쪽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화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행복을 가져오고 또 무엇이 슬픔을 가져오는지에 관해 자신들이 믿는 바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때때로 후기 성도들은 이런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토록 평안할 수 있나요?” 그러면 차분히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어린 소년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물문경에 묘사되어 있는 부활하신 구주의 사랑 넘치는 성역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회원으로서 제가 그런 모범을 보일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제가 믿는 바를 더욱 잘 전할 수 있을까요?”라고 궁금해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구주와 그분의 교회를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몇몇 충실한 성도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세히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방법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물문경을 항상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날짜를 정해 놓고 선교사가 가르칠 사람들을

찾습니다. 이들은 각자 기도를 통하여 자신만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를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그들처럼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자신이 사랑이 많은 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한 자녀임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자주 기도로 그분에게 나아옵니다. 둘째로 복음에 대해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자신에게 의미한 바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은사를 받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그들은 구주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뭔가 더 나은 삶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그분과 더욱 가까워져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신뢰하시기 때문입니다. ●

2003년 4월 연차 대회 말씀 중에서

생각할 점

1. “관심을 보이면서 주의 깊게 경청함”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또한 복음을 나누는 것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2.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가까워져 있음을 느끼고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가?
3. 어떠한 점에서 이 교회의 회원이라는 사실에 감사를 느끼는가?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누가 있는가?



선교 사업을 할
기회를 얻도록
기도한다.

친절하게
대한다.

친구들을 교회
활동에
초대한다.

훌륭한
모범이 된다.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눈다.

주: 리아호나에서 이 장을
떼어내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이 활동 부분을 복사하거나
인터넷 www.lds.org에서
인쇄할 수 있다. 영어판은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기타 언어는 "Languages"를
클릭한다.



난 지금 선교사 될 수 있네

“그리고 만일 너희가 … 단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데려오면, …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교리와 성약 18:15)

린다 크리스텐슨



사도 바울은 훌륭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로마서1:16)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곳을 여행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나누고 사람들의 행복을 돕는 가운데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동생 새뮤얼은 이 후기 시대에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그 후 백만 명 이상의 남성과 여성들이 선교 사업을 하였습니다. 각 선교사들은 새뮤얼 스미스와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간증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1873~1970년)은 “모든 회원은 선교사”¹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겠다는 여러분의 침례 성약을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의 가사를 기억하십시오.

난 지금 선교사 될 수 있네
클 때까지 기다리잖네
나 매일 훌륭한 생활 하면
내가 간증 가진 줄 그들이 알아야
간증 가진 걸 알게 되리라.²

활동

친4쪽을 떼어내어 집과 다섯 개의 창문을 오린다. 각 창문을 복음을 나누는 집의 창문 테두리에 붙인다. 가족들과 함께 그 집에 관한 아이디어들을 얘기한다. 여러분이 지금 선교사가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결정한다. 가족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복음을 나누는 집을 놓아 둔다.

주

1. 대회 보고, 1959년 4월, 122쪽.
2. “난 지금 선교사 되고 싶네”, 어린이 노래책, 90쪽, 3절.

함께 나누는 시간 제언

1. 준비물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간단한 일거리들에 대한 물품을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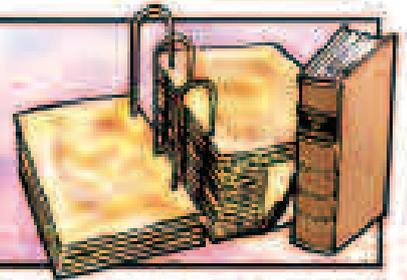
(예: 설거지-주방세제와 수세미가 물품에 포함될 수 있다, 요리-레시피와 재료들이 물품에 포함될 수 있다.) 각 반을 위해 서로 다른 일거리가 담긴 가방을 준비한다. 각 반에게 가방을 열어보고 어떤 일을 완수해야 하는지 결정하고, 그에 필요한 물품들을 생각하며, 왜 각 물품이 그 일을 완수하는 데 필요인지 설명하게 한다. 각 반에게 초등학교 반원들과

나누게 한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듯이 좋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설명한다. 복음 그림 패킷 605(기도하는 소년)와 617(경전을 상고함)을 칠판에 붙이고 그 밑에 “나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 매일 기도하고 경전을 읽음으로써 준비할 것이다.”라고 적는다. 어린이들에게 이 원리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그들이 선교사가 되는 데 준비가 될 수 있는지를 나누게 한다. 엘마 이세와 모사이야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요약한다. 어린이들에게 엘마서 17장 2~3절을 찾게 한 다음 함께 읽는다. “그들이 부지런히 경전을 상고하였”으며 “많은 기도에 힘썼”다는 구절들을 강조한다. 기도와 매일 하는 경전 공부의 힘에 대해 간증하고, 어떻게 그것들이 선교사가 되도록 우리를 준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간증한다.

2. 빈 통에 “충실하고 순종함”이라는 글귀를 붙인다. 나이가 많은 어린이와 나이가 적은 아이들 모두를 위해 신앙과 순종에 대한 몇 가지 사례 연구를 준비한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999년], 165~166쪽 참조) “나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 충실하고 순종함으로써 준비할 것이다”라고 칠판에 적으며 함께 나누는 시간을 시작한다. 어린이들과 함께 그것을 읽는다. 어린이 한 명에게 한 가지 사례 연구를 선택하게 한다. 그 어린이 또는 반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지 대답하게 한다. 그들의 답은 신앙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어린이에게 작은 물건(콩 또는 작은 돌)을 통 속에 넣게 한다. 각 사례 연구 후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어린이 노래책, 48쪽) 중 “의를 행하고 주 빛 따르며 진리 전하리라”는 구절을 노래한다. “진리 전하리라”라는 구절은 우리가 선교사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 통이 다 찰 때까지 계속한다. ●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오하이오 주로 이주하는 조셉



1831년에 조셉과 에머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로 여행했습니다. 그들이 뉴얼 케이 휘트니 상점에 다다랐을 때, 조셉은 전에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교회 회원에게 인사하기 위해 썰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뉴얼 케이 휘트니!
 당신이 그 사람이군요!

몰라 뵈겠는데
 누구신지요?
 저는 당신처럼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으니 말이요.



나는 선지자 조셉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이곳에 왔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원하십니까?



조셉은 휘트니 가족이, 자신이 커틀랜드에 오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시현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시현을 통해 휘트니 형제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셉과 에머는 몇 주 동안 휘트니 부부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는 약 400명의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커틀랜드에 살았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선지자와 가까이 있기 위해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이 분이 바로 선지자 조셉입니다.

조셉!

조셉!

몇 달 후, 조셉과 그의 가족은 오하이오 주 하이럼으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조셉과 시드니 리그돈은 성경의 영감역에 착수할 조용한 장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조셉과 그의 가족은 하이럼에서 일년 동안 살았습니다. 조셉이 커틀랜드로 돌아왔을 때, 주님은 성도들에게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조셉은 시현을 통해 성전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분의 집에 관한 계획을 알려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열심히 일하며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마침내, 성도들은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조셉은 1836년 3월 27일에 그 성전을 헌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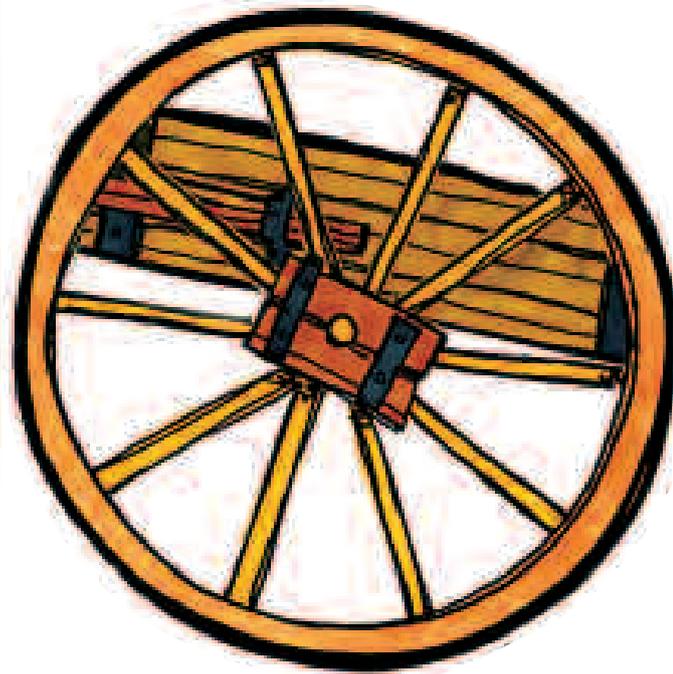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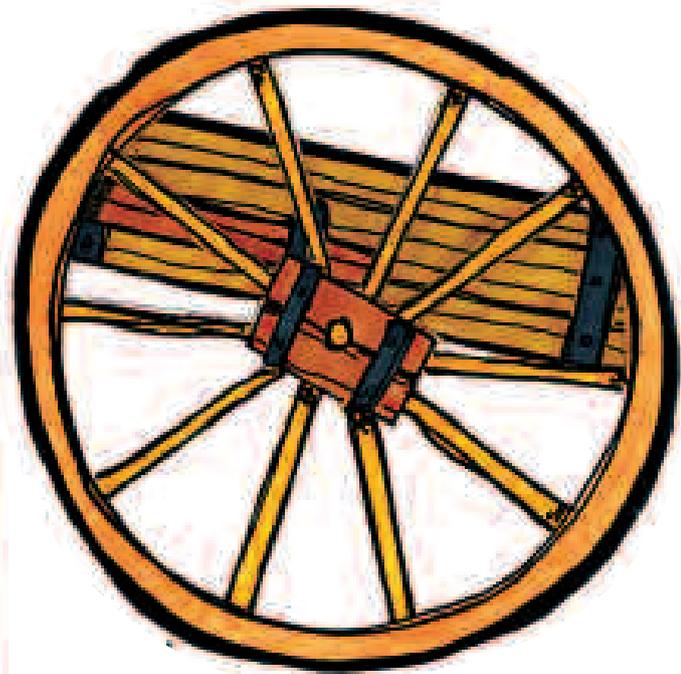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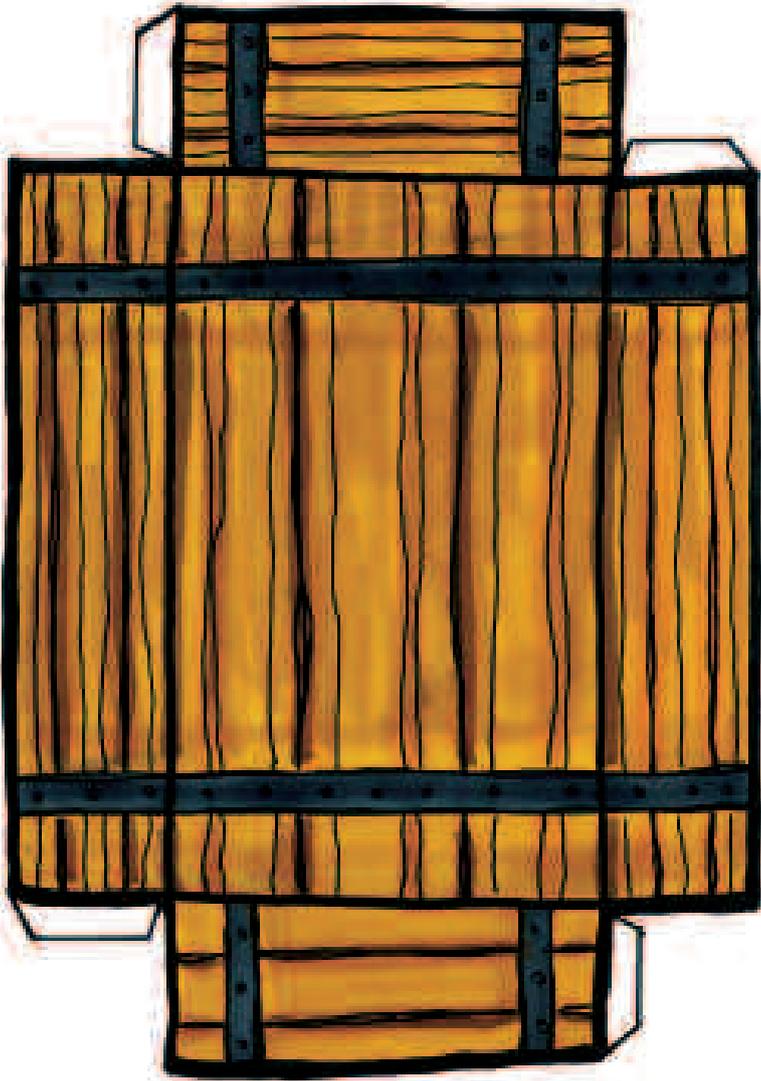
우리는 큰 고난을 통해 이 사업을 행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이 집을 건축하기 위해 빈곤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재산을 바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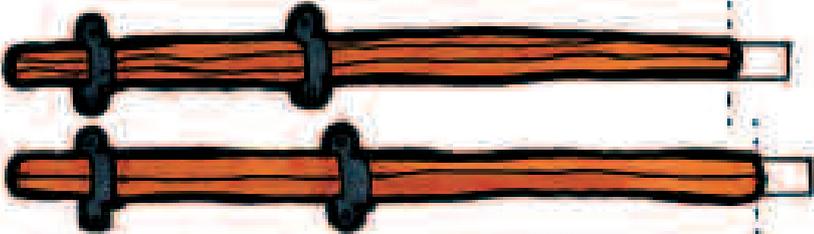
1 856년 후기 성도 개척자들의 첫 번째 손수레 부대는 솔트레이크 계곡을 향해 여행을 시작했다. 그 후 4년이 넘도록,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손수레를 밀고 당기며 평야를 횡단했다. 나만의 손수레를 만들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른다. 물품들을 실으면서 나라면 어떤 것을 여행에 가지고 갔을지를 생각해 본다.

만드는 방법

이 페이지들을 잡지에서 떼어내어 두꺼운 종이에 붙인 후 각 그림들을 오려낸다. 손수레의 침대를 만들기 위해 양옆과 앞, 뒷면을 접고 접히는 부분에 풀칠한다. 양옆에 바퀴와 끌채 부분을 붙인다. 끌채의 끝부분에 빗장을 붙인다. 나머지 그림들이 서 있을 수 있도록 받침대를 접어준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빗장대 안쪽에 둔다.(끌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아버지의 손을 끌채 밖에 붙인다.) 딸과 물품들을 손수레 안에 놓고, 아들은 손수레 미는 일을 도울 수 있는 장소에 둔다. 뒤편에 냄비를 거는 것을 잊지 않는다!

나만의 손수레 만들기





주: 리아호나에서 이 페이지들을
 떼어내고 싶지 않은 경우, 이 활동
 부분을 복사하거나 인터넷
www.lds.org에서 인쇄할 수 있다.
 영어판은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기타 언어는
 "Languages"를 클릭한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현재 호주 지역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칠십인
정원회의 폴 케이
시브로스키 장로와의
인터뷰에서 발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말라기 2:10)

저는 훌륭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교회가 가르치는 정직과 고결한

가치관에 따라 생활하셨지만 교회에서
활동적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친구들이 초등학교에 갔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행복을 느꼈고 결코
초등학교를 빠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는 저의 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주 성찬식에 갔고 제 초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저는 성찬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취할 때 제가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성약이라는 단어를 배우기도 전에 성약이란 말의
느낌을 이해했습니다.

열두 살이 되었을 때, 제 아론 신권 정원회는
저의 두 번째 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신권에 대해 큰 사랑과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집사 정원회 회장으로서 저는 정원회 모임에서
사회를 보았고 새로운 집사가 성임될 때는 간단한
환영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신권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군 예비대에

입대했습니다. 제 지휘관은 제게 미육군의
장교로 임명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매우 정중했으나 품채 또한 아주 크고
당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제의를 쉽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날 밤 기도를 드리자 제 머릿속에는 교리와
성약 20편 73절에 나오는 침례 기도문이
떠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임을
받아,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

저는 다음 날 아침 지휘관에게 찾아가 제가
받는 임명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은 느낌은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기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러한 느낌들을 반복해서
느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6년 시브로스키 장로와 그의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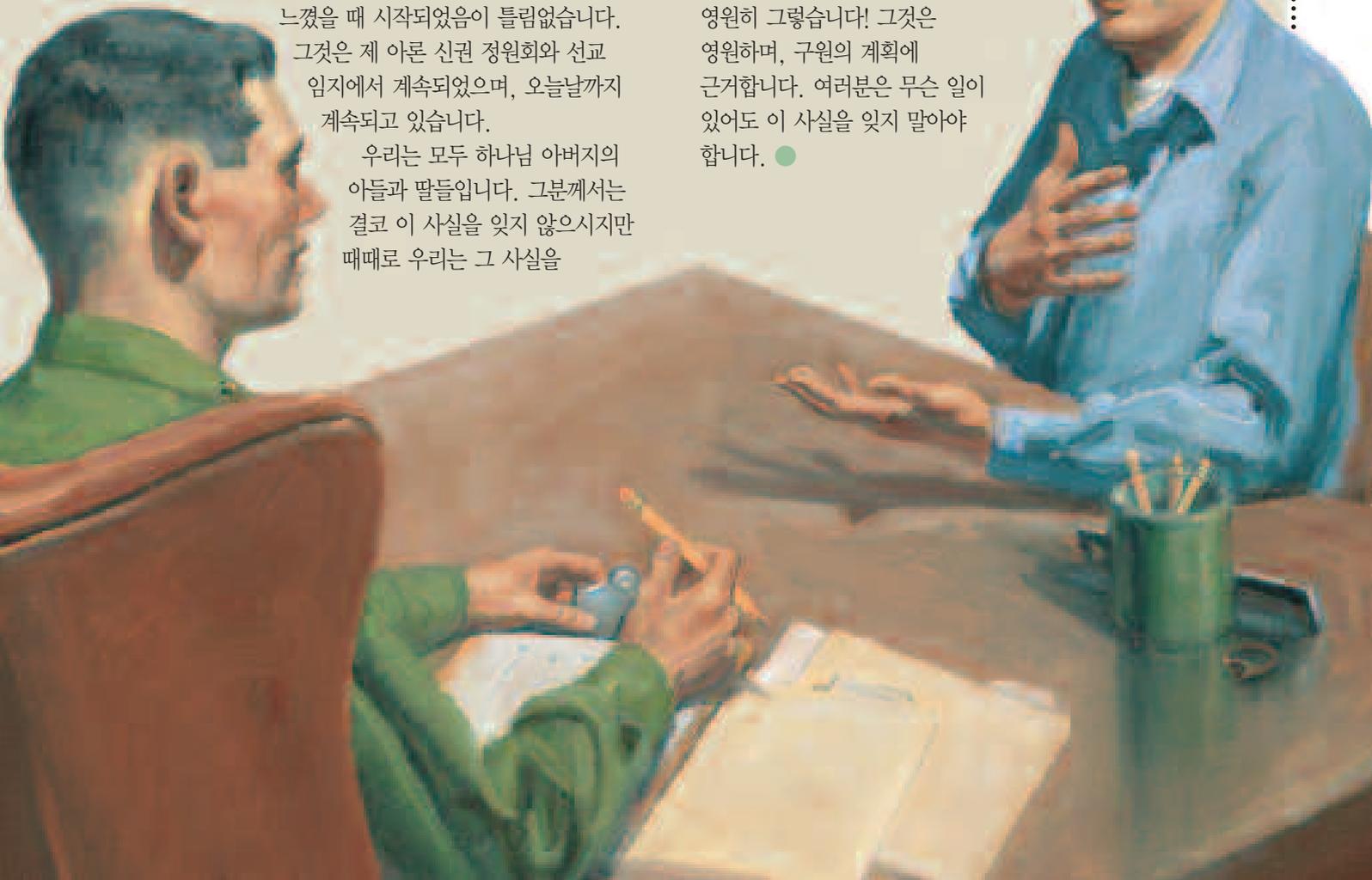
저를 아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개종은 제가 처음 초등학교를 참석하고 그곳에서 영을 느꼈을 때 시작되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제 아론 신권 정원회와 선교 임지에서 계속되었으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분께서는 결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 사실을

잊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억을 돕기 위해 신앙의 원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신앙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경험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저는 제 신앙을 키울 수 있는 경험들을 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경험들을 즐기십시오. 그 경험들을 통해 그분께서 여러분이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배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분과 그분의 아들에 대한 신앙을 키울 수 있는 경험들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들이 다소 슬플 때에는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나 딸이라는 것과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견고한 답입니다. 영원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영원하며, 구원의 계획에 근거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나랑 같이 초등회에 갈래?

“작고 단순한 일로
큰 일이 이루어지며”(앨마서 37:6)

레니 허딩
실화에 근거함

나를 포함한 삼학년 전체는 크리스티가 철봉과 그네의 여왕이라는 사실에 동의할 것이다. 크리스티 만큼 철봉에 재빨리 오른다거나 그네를 높이 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크리스티는 다른 경기에서도 그만큼 뛰어났다. 그러나 크리스티에 대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좋은 친구라는 것이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크리스티가 물었다. “나랑 같이 초등회에 갈래?”

나는 초등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게 뭘데?”라고 내가 물었다.

크리스티는 “초등회는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아이들만을 위한 거야. 가면 노래도 부르고 새 친구들도 사귀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아주 아주 좋은 우리 초등회 선생님도 만날 수 있어.”라고 설명했다.

“팔머 선생님만큼

좋으셔?” 어떤 선생님도 우리 삼학년 선생님만큼 좋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내가 물었다.

크리스티는 “그래, 팔머 선생님만큼 좋으셔”라며 웃었다.

방과 후 나는 단숨에 집까지 뛰어가 엄마에게 초등회에 갈 수 있는지 여쭙보았다. 하지만 엄마는 그것에 대해 나만큼 신나하지는 않으셨다. “조금 더 알아봐야겠는걸.”하고 말씀하셨다. “크리스티의 교회 이름이 뭐니?”

그것은 시작부터 어려운 질문이었다. 엄마에게

말씀드렸듯이 “기억이 안 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긴 이름”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걱정스러워하는 엄마의 표정에서 내가 말을 잘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잠깐만요. 당장 크리스티한테 전화해 볼게요!” 나는 엄마가 다른 말씀을 하시기 전에



“회원 선교사와 전임 선교사를 막론하고 가장 훌륭한 선교사들은 언제나 사랑으로 행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복음을 나눔”, 리야호나,
2002년 1월호, 8쪽.



전화기로 달려가 크리스티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 벨이 두 번 울리자 크리스티가
받았다. “여보세요?”

“크리스티!” 나는 소리쳤다. “너희 교회 이름이
뭐라고 했지?” 나는 주의 깊게 들은 후 말했다.
“엄마, 크리스티의 교회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래요.” 찌푸린 엄마의 얼굴 표정이
더 나아지지 않자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크리스티,
너희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초등학교에 대해 말씀해
줄 수 있을까?”

크리스티가 내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을 들었던
것 같다. 딱 5초 만에 자기 엄마를 전화기로
모셔왔으니 말이다. 우리의 엄마들은 곧 오래된
친구들처럼 웃으며 이야기를 하셨다. 그런 후
엄마는 내가 초등학교에 갈 수 있다고 크리스티의
엄마에게 말하셨다.

처음 초등학교에 갔을 때, 초등학교는 크리스티가
말한 그대로였고 오히려 더 좋았다. 크리스티가
옳았다—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은 정말 정말 좋은
분이셨고, 모든 면에서 팔머 선생님만큼이나



우리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경을 시켜주는 동안 엄마는 많은 질문을 했고 그 남자는 신이 난듯이 그 모든 질문에 대답해 주었다. 구경이 끝나자 엄마는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방문록에 적었고 ‘교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받고 싶습니다.’ 라는 말 옆의 “예”라는 네모 칸에 표시를 했다.

우리가 여행에서 돌아오자 자신들을 장로라고 칭하는 두 명의 젊은 남자들이 우리 아파트에 찾아왔다. 그들은 우리에게 자신들은 엄마가 교회에 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한다는 솔트레이크시티 방문자 센터의 메시지를 받은 선교사들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 가르치고 싶다고 말했다. 그때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우리 가족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교회에 가던 날, 나는 우리 가족에게 예배실에 들어서면 경건하게 팔짱을 끼라고 당부했다. 나는 초등학교에서 이것이 경건함을 표시하는 한 방법이라고 배웠었다. 우리는 모두 경건히 팔짱을 끼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악수를 청하고 교회에 온 것을 환영해 주었기 때문에 정작 오랫동안 팔짱을 끼지는 못했다.

마지막 토론 후, 선교사들은 엄마에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되도록 침례를 받고 싶은지 물어보았다. 엄마는 그것에 대해 기도해 봐야겠다고 말씀했다. 다음날 아침 여섯 시, 엄마는 선교사들에게 전화해 침례를 받는 것에 대해 밤새도록 기도했고 대답은 ‘네’ 라고 말씀하셨다! 내 형제들과 나 역시 침례를 받고 싶다고 선교사들에게 말했다.

나는 아직도 침례탕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던 때를 기억한다. 나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맘속으로 너무 행복해서 웃으며 소리치고 싶었다. 올려다보니 엄마가 행복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나만큼이나 들떠 있는 크리스티를 보았다. 이 모든 일이 실로 그 친구의 “나랑 같이 초등학교에 갈래?”라는 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었다. ●

좋았다. 초등학교 선생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관한 소책자까지 주셨다.

나는 그날 집에 가서 엄마께 내 소책자를 보여드리고 초등학교에 관하여 모두 말씀드렸다. 나는 엄마와 두 형제들에게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나에게 불러준 “인사 노래”(어린이 노래책, 130쪽)도 불러주었다. 엄마는 내 소책자 표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을 관찰하고 책 속의 내용을 읽어 보며 조용히 생각하는 표정을 지으셨다. 그런 후 원한다면 크리스티와 함께 매주 초등학교에 가도 좋다고 말씀하셨다.

정말 그리고 싶기는 했지만 나는 여름 방학에 가족과 여름 휴가를 갔기 때문에 정작 그 후 몇 번 밖에는 더 갈 수가 없었다. 우리는 차에 짐을 싣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리노이 주의 할머니 농장까지 달렸다.

여행 이틀 날, 유타 주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도로 광고판들 위에 크리스티의 교회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다.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방문자 센터라는 곳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광고였다. 엄마는 교회에 대해 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그곳에 들러보라고 했다.

방문자 센터의 문을 들어서자 명찰을 단 친절한 한 남자가

가족 금식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한복음 8:12)

몇

년 전 우리 가족은 멀리서 발생한 자연 재해의 희생자들을 위해 가족 금식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금식 후에 저금통에 모인 동전들을 교회 인도주의적 기금에 기부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동전을 넣는 두 개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친절 항아리’로, 누군가 남을 돕거나 선행을 할 때마다 그 항아리에 동전 한 개를 넣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돈을 연말에 가족끼리 재미있는 활동을 하는데 사용합니다. 다른 항아리는 ‘무례 항아리’로, 누군가 싸우거나 빠질 때마다 그 속에 동전을 넣습니다. 이 항아리에 모인 돈은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기부됩니다.

금식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동전들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홉 살짜리 레오나르도가 자기 저금통을 가져왔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자신이 모은 돈과 몇 개의 장난감도 가지고 와 기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열두 살인 마리아나도 자신의 돈을 가지고 와 기부금에 보탤했습니다. 아이들이 낼 수 있는 돈은 비록 몇 달러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부였습니다.

레오나르도와 마리아나에게는 금식이 일종의 희생이었고 저금통의 돈을 포기하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신의 저금을 기부했을 때 나는 그들이 참으로 이 세상 반대편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 대해 마음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

레지나 모레이라 몬테이로, 브라질





신화 에이브릴 스톤

나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눌 것이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너희 온 생애 동안 수고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데려오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누리게 될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요리와 성약 18:15)



사진 촬영: 문 태영

지역의 회교 사원 근처에 세워진 이 새로운 마을 회관은 교회가 건축을 도운 세 개의 마을 회관 중 하나이다.

장기간의 원조 프로그램이 복구 절차에 따라 쓰나미 희생자들을 돕다

케리엔 살리스버리, 교회 잡지

2004년 쓰나미가 동남 아시아 해안을 폐허로 만든 이후, 인도네시아에 있는 수카르디와 그의 가족들이 모든 것을 잃고 희망을 다시 찾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우리는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2004년 12월 26일, 11개국에서 225,000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간 쓰나미를 일으킨 엄청난 해저 지진이 인도네시아 해안을 강타했던 그 날을 회상하며, 수카르디가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 남았고, 이렇게 함께 있어 행복합니다.”

수카르디는 다른 수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족 중 일부와 친구, 집과 땅을 잃었고 그의 목숨마저도 잃을 뻔했다. 쓰나미와 함께 쓸려간 뒤, 그는 간신히 야자수를 붙잡고 홍수가 물러갈 때까지 매달려 있었다.

저마다 비슷한 생존 경험을 한 가족들과 함께, 수카르디는 현재 교회 인도주의 서비스부의 행정

기관인 후기 성도 자선회가 쓰나미 생존자들을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어준 집에서 살고 있다.

장기간의 복구에 대한 헌신

교회의 비상 구호단은 재난이 닥친 직후 수개월간 식량, 위생 용품, 의약품 및 의복과 같은 물품들을 제공했다. 회원들의 상당한 기부로 힘입어, 교회는 장기 구호 계획에 착수했다. 그러한 장기 작업의 일환으로, 130척 이상의 어선을 교체하는 건조 작업을 위한 어부와 목수들을 고용하였다. 새우 어장 주변의 제방 재건을 돕기 위해 대형 굴착기를 운전할 인부들을 고용하기도 했다. 또한 재봉틀, 직조기, 손수레 및 기타 장비들을 기부함으로써 다시 자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첫해에는 생활 터전을 재건하여 개인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짐 그레이디가 압둘 사마드와 그의 생존한 가족들에게 새 집을 인도한 후, 그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주력했습니다.” 라고 교회 인도주의 서비스부의 책임자인 브렛 바스가 말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살펴보고, 그들에게 가장 긴급한 필요사항이 무엇인지 판단한 후 영구 재건에 우리의 노력을 재집중했습니다.”

교회의 노력에는 마을 회관, 가옥, 학교 및 병원을 짓고 정수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 등이 포함되었는데, 이 모두는 엄청난 인도주의적 기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도움이 절실한 때에, 전세계의 교회 회원들은 이러한 노력이 가능하도록 돕는 데 기여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진 교회의 기념비적인 복구 작업은 2007년 12월에 종결되었다. 주요 성과로는 902채의 가옥과 3동의 마을 회관, 15개의 학교, 장비를 두루 갖춘 3동의 병원 건축과, 병원 부속 건물 개축, 그리고 24개 마을의 정수 시스템 완성 등이 있다.

집과 인생을 재건함

압둘 사마드는 가족들과 함께 새 보금자리로 이사 하기 전, 급조된 마을의 임시 건물에서 2년 반 동안 살았다. 그는 흥수로 아내와 어머니를 잃었지만 지금은

남은 가족인 세 딸과 외아들을 위해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교회가 건축하고 기부한 902채의 가옥은 각각 44평방미터이다. 집을 갖게 된 수백 명의 사람들은 그들의 집이

최고로 잘 지어진 집이라고 생각하며,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그 집을 물려 줄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들은 집에 쓰인 색상과 바닥 타일을 좋아했으며 그들의 인생에 견고하고 믿음직한 무언가를 다시 갖게 되었음에 감사를 표했다.

“지진이 강타하고 쓰나미가 밀려왔을 때, 혹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맨 처음 취한 대응은 밖으로 뛰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라고 가옥 건축을 위해 교회와 협력 작업을 한 국제 이주 기구의 제프 맥멀도가 말했다. “그 일이 시작된 순간부터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 열쇠를 받게 되었을 때, 비로소 쓰나미의 비극이 끝나간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훼손된 학교를 대체하기 위해 지어진 15개 학교 중 하나인 민 람폭 학교에서, 새로운 교사들이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다.

학교와 희망을 건립함

교회는 이슬람 구호 단체, 안식교 개발 및 구호 단체와 공동으로 15개의 학교를 재건하는 일과 더불어 새로운 교사들을 훈련하고, 교과 과정 및 교육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는 작업을 계속했다.

그 지역의 많은 교사들이 쓰나미로 사망함으로써, 심각한 교사 부족 사태가 야기되었다. 반다 아케의 교사인 카마루짜만은 부임해 있던 학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두 명의 교사 중 한 사람이다. 건물과 교사 및 학생 수가 줄어들어 따라, 새로운 학교들이 건축되기까지 교육은 임시 변통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들은 마을 회관의 홀을 학교 임시 건물로 사용해 왔는데 그곳에는 약 40여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더 좋은 학교 건물을 갖게 되었고 이것은 학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더 희망찬 미래가 있습니다.”라고 새로 지은 학교의 현



건축된 900개 이상의 가옥들 중의 이 두 집은
마당으로 둘러싸여 있다.

교장인 카마루짜만이 말했다.

각 학교 건물에는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책상, 화이트보드, 도서실들이 구비되어 있다. 더 많은 교사가 확보됨에 따라, 훈련 및 새로운 교과 과정 개발이 강조되었다.

이슬람 구호 단체의 교육 담당관인 헤르리아나는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학교도 없었고 훈련 받은 교사들도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역 사회에 대단한 공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어린이, 교사, 부모, 또한 가족들의 삶에 큰 차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제공함

활기와 미소가 가득한 여성 파우지아는 현재 아케 프로방스의 바레우엔 근처에 위치한 작은 마을의 용수 관리자이다. 이 직책에서, 그녀는 마을의 새 급수 시스템 이용 기록을 작성하고 이용자들로부터 물 사용요금을 수납한다.

국제 구호 및 개발 단체와 공동으로, 교회는 24개 마을의 물 관련 사업을 완수했다. 이 사업은 우물 보수, 저장 탱크 설치, 하수도 설비 및 공급 체제 개선으로 구성되었다. 이 작업으로 20,000명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전에는, 좋은 물을 얻는 것이 어려웠고 시간도 아주 오래 걸렸어요.” 파우지아가 자신의 집 바로 앞에서 물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며 말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더 건강해질 것이고 더 나은 미래를 갖게 될 거예요.”

목욕 및 세탁 시설도 마을에

설치되었는데, 주민들은 이러한 시설들을 관리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법을 훈련 받았다.

의료 시설을 개선함

각 마을에서 개인 위생에 관한 훈련을 받는 동안, 장비를 두루 갖춘 3동의 병원과 1동의 병원 부속건물을 완성시키는 등, 의료 시설 개선을 위해 더욱 정성을 쏟았던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것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집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이죠. 우리는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라고 비레우엔 지방의 마을 지도자인 시알만이 말했다. 이 지방에서는 병원에 가려면 15킬로미터를 걸어가야 했다.

교회는 또한 의사와 의료진을 위한 훈련 계획을 세웠고 필요한 의료 장비들을 제공했다.

주님의 방법으로 실행함

미국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에 사는 빌과 린다 햄에게 주어졌던 이 임무는 개인적인 도전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 구호 작업을 감독하는 인도주의 봉사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그 도전으로 매우 들떴고, 동시에 그 기회로 부담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라고 햄 형제가 말했다.

이 기회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사우전드 옥스에 사는 짐과 카렌 그레딩에게도 주어졌다. 햄 부부가 18개월간의 선교 사업을 마친 후, 이 부부는 그 사업의 완성을 감독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현장에서 일이 완수되는 것을 감독하라는 임무 지명을 받은 이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업에 기여한 많은 개인들의 대표자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는 작업의 질이 어떠한지, 또 사업에 배당된 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독해야 했습니다.” 그레딩 자매가 말했다. 교회의 대표자들이 자금 집행법을 비롯한 모든 진행 과정에 참여했으며, 이는 교회와 다른 조직을 구별하는 일면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재정을 신성한 기금으로 여겼고, 이 기금들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낭비되지 않는지 살피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쓰나미 구호를 위한 현장 운영 책임자인 빌 레이놀즈가 말했다. “다른 많은 단체들은 기금을 제공한 후,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드문드문 주어지는 보고서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검토한 예상 기준치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금을 제공했습니다. 우리와 협력한 단체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하고 싶다고 말하면, 그것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희망을 복구함

교회는 인도네시아와 그 나라의 국민들이 비극과 고통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삶의 재건을 위해 단순히 앞으로 한 걸음 전진하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노력들이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원조를 제공한 많은 개인과 단체들 사이에서 하나의 작은 역할을 하는 동시에, 선교사들은 그들의 사랑과 회원들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나눌 수 있었다.

“전도하는 것이 허락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대표하고 있었고, 우리의 일을 할 때에 친절하고 공손하고 또는 단순히 미소를 지음으로써 간증을 나누려고 애썼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금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선지자에 대해 말했고, 그분이 회원들에게 24시간 금식과 더불어, 식사비만큼의 금액을 특별 기금으로 기부할 것을 요청하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영이 이를 증거해 주었으며, 그들이 온 세상에 자신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햄 자매가 말했다.

쓰나미의 흔적들은 아직까지도 짙게 남아 있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기울여 준 모든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이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땅이 영영 바다가 되고, 많은 이들이 그들의 목숨과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그 파괴의 흔적들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레이 자매가 말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인들에 대해 의심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보기만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족한 영어로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

인도네시아에서 진행중인 기타 원조

비록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교회의 장기적인 쓰나미 구호 관련 주요 사업은 마무리되었지만, 인도주의 서비스부는 진행 중인 다양한 원조 사업을 유지할 것이며, 쓰나미 구호 작업 동안 형성된 새로운 관계와 그로 인해 강화된 기존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우리는 쓰나미 이전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인도주의적 사업을 행하고 있었으며, 오늘도 그 나라에서 구호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라고 교회의 인도주의 서비스부 책임자인

브렛 바스가 말했다.

2007년 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24건 이상의 인도주의적 원조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그 사업들 중에는 자카르타와 솔로의 홍수 희생자, 자바의 진흙 유입 희생자, 수마트라와 벵쿨루의 지진 희생자들에 대한 비상 구호 작업이 있다. 기타 사업들은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 기부 및 생업 훈련 자료 제공, 의료 장비의 병원 공급, 수많은 소아 수술 후원, 다수 학교를 위한 가구 및 위생 설비 제공, 정수 시설이 전무했던 마을에 설치한 정수 시설 사업 총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학업 중도 포기 경향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후기 성도 학생들

미국 청소년 옹호 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십대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있는 반면, 교회의 많은 청소년들은 학업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과외의 수업까지 듣고 있다.

19세기,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경전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라”(교리와 성약 93:36)고 말한 이래로, 후기 성도의 교리와 문화에서는 현세적 교육과 종교적 교육 모두가 강조되어 왔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2001년 교회 교육자들을 위한 연설에서 종교적 학습과 현세적 학습 간의 연계를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필멸의 삶뿐만 아니라 영생을 위한 교육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안목으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바라볼 때, 여러분은 영적인 배움을 우선으로 둘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현세적인 배움을 경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그러한 영적 시각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보다 현세적인 배움에 더 열심히 정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후기 성도 청소년들의 영적 배움에 대한 애정은 미국 십대들의 종교를 연구하는 전국 청소년 및 종교 연구회의 보고서에서도 증명되었다. 이 보고서는 일반 십대들의 교회 참석과

종교 학습이 사상 최저치인 시기에 후기 성도 청소년들은 종교적 지식과 헌신에 있어서 뛰어나다고 설명한다.

이 연구 결과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후기 성도 문화와 교리의 어떤 점들이 믿음직하고 교양 있고 안정된 청소년들을 길러내도록 부모들을 돕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이에 대한 대답 중 하나는 후기 성도 문화가 가지고 있는 배움에 대한 강조이며, 또 다른 하나는 14세에서 18세 사이의 대부분의 후기 성도들을 위한, 중요한 통과 의례인 세미나리 졸업이다.

세미나리를 졸업하는 대다수의 십대 후기 성도들은 4년간을 일주일에 다섯 번, 대개 오전 6시에서 7시까지 모여서 경전을 공부하고 또한 경전의 원리를 어떻게 그들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토론한다. 이 모든 것은 정규 학교 시간 내에 모이는 것이 허락된 미 서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정규 고등학교 수업 이외의 시간에 이루어지며, 대략 1,056시간의 종교 교육을 필요로 한다.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것은 후기 성도 인구가 그리 많지 않은 지역에 사는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자기 수양은 자신감과 성품으로 변모하기 시작하고, 그것은 이 젊은이들의 삶의 다른 양상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른 아침을 헌신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회의 가르침에서 비롯된다. 제 15대 교회 회장인 고든 비 힝클리 회장(1910~2008)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교회는 지적 호기심의 결과로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믿으며, 예산의 상당 부분을 젊은이들의 교육에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이



많은 후기 성도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한다.

탐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이 머리를 쓰고, 모든 분야에서 깊은 지식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토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라.’”(고든 비 힝클리의

가르침, [1997년], 127쪽)

현재 360,000 명 이상의 고등학생들이 세미나리에 등록되어 있고, 그 중 211,000명이 새벽반에 참석하고 있다. ■

교회, “문호 개방”의 전통을 지속하다

선 지자 조셉 스미스는 뉴욕, 오하이오, 미주리, 일리노이 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손님들을 자주 접대하곤 하였다. 그 중에는 그가 초대할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행인들도 있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을 자주 찾는 손님들과 기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숙박을 제공하기 위해 일리노이 주 나부에 호텔을 지었다.

이러한 환대는 교회 회원들이 서부에 정착했을 때에도 계속되었다. 교회 초기에 많은 저명 인사들이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했다.

오늘날, 솔트레이크시티를 찾는 관광객과 여행객 중 많은 수가 그 일정 중에 템플스퀘어 광장과 같은 교회 유적지를 방문하고 있다.

해마다 수백만 명의 방문객들이 건축적으로 의미가 깊은 태버네클 뿐만 아니라 교회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된 화강암 벽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잘 가꾸어진 템플스퀘어에 발을 디딘다.

휴가 차 가족이나 개인 단위로



슬레레이크시티를 방문한 한 힌두교 해외 파견 성직자가 교회의 인도주의 센터에서 영접을 받고 있다.

방문하는 사람들, 회의나 기타 모임에 참석했다가 휴식을 위해 들르는 사업가들, 여가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 저명인사 또는 초대된 손님들은 템플 스퀘어와 교회 본부 주변의 건물들, 즉 컨퍼런스 센터, 가족 역사 도서관, 교회 역사 미술 박물관, 조셉 스미스 기념관, 또는 교회 본부 건물까지 방문하기도 한다.

템플 스퀘어에 도착하면, 교회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세계 전역에서 온 젊은 여성들이 방문자들을 맞이한다. 이 젊은 선교사들은 약 1,300명의 자원봉사자 그룹의 지원을 받는다. 부부나 개인들로 이루어진 이 자원봉사자들은 젊은 선교사들과 함께, 관심 있는 방문자들에게 간략한 견학을 제공하고 교회의 역사와 믿음에 대해 설명한다. 이들 봉사자들이 2007년에 템플 스퀘어에서 안내 역할을 하는 데 쏟은 시간은 거의 240,000시간에 달한다.

2007년에는 약 5백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템플스퀘어를

다녀갔으며, 이곳은 미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 중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방문자들은 미국의 모든 주뿐만 아니라 세계 83개국으로부터 여행해왔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내방객들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상관 없이, 전임선교사와 시간제 선교사로 봉사하는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안내자들은 조셉 스미스 시대 이래로 교회에 존속되어 온 전통적인 환대를 보여주고 있다. ■

성전소식

렉스버그 성전이 125번째 성전이 되다

아이다호 렉스버그 성전이 2008년 2월 10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에 의해 헌납된 이후로 개관, 운영 중에 있다. 헌납식은 그가 제 16대 교회 회장으로

서 가진 첫 번째 행사 중 하나였다.

몬슨 회장은 네 번의 헌납식을 모두 감리했으며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와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가 함께했다.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 남쪽에 위치한 아이다호 렉스버그 성전은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125번째 성전이자 아이다호의 세 번째 성전이다. 대략 200,000 명이 헌납식 이전 한달 간 열린 성전 오픈 하우스에 참석했다.

5,100 평방 미터의 이 성전은 2003년 12월에 처음 발표되었고, 2005년 7월에 기공식을 가졌다. 석영 마감재와 700개의 공예 유리창이 이 성전 외관상의 특색을 이루고 있다. 아이다호 동부에 거주하는 약 47,000명의 교회 회원들이 이 성전을 이용하게 된다. ■

브라질 큐리티바에서 성전이 헌납되다

브라질 큐리티바 성전이 2008년 6월 1일 일요일에 네 번의 헌납식을 갖고, 다음날인 2008년 6월 2일 월요일에 개관되도록 계획되었다.

축하 문화 행사는 헌납식 전날인 5월 31일 토요일에 열리기로 되어 있다. 축하 행사와 헌납식 이전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한 달에 걸쳐 일반 대중을 위한 오픈 하우스가 있을 예정이다.

브라질 큐리티바 성전은 전세계에서 운영되는 126번째 성전이자 브라질의 다섯 번째 후기 성도 성전이다. 이외의 성전들은 캄피나스, 포르토 알레그레,

레시페, 그리고 상파울로에 위치해 있다. 2007년에 발표된 마나우스 성전은 브라질의 여섯 번째 성전이 될 것이다.

큐리티바 성전은 2002년 8월에 처음 발표되었고, 2005년 3월에 기공식을 가졌다. 파라냐와 산타 카타리나 주의 21개 스테이크 회원들을 포함한 42,0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이 성전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헌납식 및 관련 행사들은 이번 호가 출판된 후에 열릴 예정이다. ■

파나마 시티 성전 행사가 발표되다

제 일회장단은 전세계에서 운영될 127번째 성전인, 파나마 파나마 시티 성전을 위한 오픈 하우스와 헌납식 일정을 발표했다.

파나마의 첫 번째 성전인 이 성전은 2008년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축하 문화 행사는 8월 9일에 열릴 것이며 다음 날인 2008년 8월 10일 일요일에 네 번의 헌납식이 예정되어 있다. 이 성전은 8월 11일 월요일부터 의식을 위해 개방된다.

당시 중미 지역 회장이었던 칠십인 정원회의 스펜서 브이 존스 장로의 감리로 기공식이 있는 이후, 2005년 10월에 건축이 시작되었다. 이 성전의 건립은 2002년 8월에 발표되었다. 파나마에는 7개 스테이크와 3개 지방부가 있으며 약 22,000명의 회원들이 있다. ■

간추린 세계 소식

구주에 초점을 맞추는

온라인 사이트 제공

2008년 2월 25일, 구주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새로운 웹사이트인 JesusChrist.lds.org가 영어 사용자들에게 개설되었으며, 앞으로 여러 언어로 제공될 예정이다.

사이트 방문자들은 구주에 관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주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에 관한 정보와 기사 및 멀티미디어 자료를 보게 될 것이다.

사이트 방문자들은 음악이나 동영상과 같은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관련 자료들도 찾아볼 수 있다.

루스 파우스트 별세

2008년 2월 10일, 루스 라이트 파우스트가 86세를 일기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환으로 별세했다. 남편이자 제일회장단의 일원이었던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1920~2007)이 별세한지 6개월만이다. 이 부부는 1943년 4월 21일에 결혼했으며 슬하에 5명의 자녀와 25명의 손자손녀, 28명의 증손자증손녀를 두었다. 파우스트 자매는 와드 및 스테이크 상호 부조회 회장을 비롯하여 많은 부름에 봉사했으며, 남편과 함께 세계 전역을 방문하며 여러 문화권의

회원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33개 언어로 출판된 준비에 관한 소책자들

가족 가정 비축과 가족 재정에 관한 간단한 메시지들이 담겨있는 한 쌍의 소책자인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가 현재 33개 언어로 출판되었다. 이 소책자는 지역 신권 지도자들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 ProvidentLiving.org에서 온라인 상으로도 24개 언어로 이용 가능하다. 페이지 좌측에 있는 **가족 가정 비축** 또는 **가족 재정**을 클릭한다. 그런 후, 페이지 우측에 있는 **가족 가정 비축** 소책자 또는 **가족 재정** 소책자를 클릭한 다음, 해당 언어를 선택한다.

교회가 라트비아 국가 사이트를 개설하다

교회가 라트비아인들을 위한 공식 웹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는 라트비아와 관련된 교회 소식과 정보를 담을 것이며 이 국가의 공식적인 교회 인터넷 사이트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라트비아 사이트가 더해짐에 따라 교회의 국가 사이트는 총 63개가 되었다. 각 사이트는 해당 국가의 공식언어로 제공되며 LDS.org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Languages**를 클릭한 다음, **Country Sites**를 클릭한다.)

2008년도 7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2008년 7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부합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 친구들의 친4쪽과 친5쪽에 있는 “나는 지금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를 참조한다.

1. 함께 나누는 시간 전에, 고든 비헝클리 회장님이(1910~2008) 말씀하신 리차드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본다. (“보다 큰 친절의 필요성”,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59~60쪽 참조) 이야기를 자신의 말로 바꾸어 전할 수 있게 준비한다.

“복음 표준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내가 지금 선교사가 될 수 있게 도와준다.” 를 여러 낱말로 나누어 섞어 놓는다. 어린이들이 낱말을 바른 순서로 맞추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나의 복음 표준에 나오는 것들을 말하게 하고 그것들에 관해 간단히 토론한다.

여러분이 헝클리 회장님의 이야기를 나눌 때 어린이들에게 어떤 복음 표준이 나오는지 잘 들어 보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토론한다. 가능하다면, 전임 선교사나 워드 또는 지부의 선교 책임자를 초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선교사가 되는 데 있어 어떻게 중요한지 말해 달라고 부탁한다.

각 어린이에게 선교사 인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준다.(초등학교 3, 120~121쪽 참조) 인형이 완성되면,

어린이들에게 친절을 보이는 방법을 한 가지 골라서 자신의 인형 뒤에 쓰라고 한다. 선교 사업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를 때 인형을 사용한다. 복음 표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간증을 전한다.

2. 초등학교를 세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게 교리와 성약 18편 15절을 가르친다. 그 성구를 여러 번 반복한 다음, 그룹별로 함께 낭송한다. 선교 사업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어린이들에게 지금 선교사가 되기 위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하고, 칠판에 목록을 열거한다.

친4쪽에 있는 복음을 나누는 집을 칠판에 붙인다. 한 어린이에게 창문을 하나 골라 그 집에 붙이게 한다. 창문에 적힌 말을 읽는다. 그 말이 칠판에 적은 목록에 없다면, 그 내용을 추가한다. 각 창문에 적힌 대로 생활하는 법을 토론한다. 집에 창문을 계속 붙이면서 복음을 나누는 집을 갖기 위한 방법들을 토론한다.

복음을 나누는 집 사본을 각 어린이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나누는 시간에 그 작업을 완성할 시간을 준다. 어린이들이 작업을 끝마치면, 복음을 나누는 집을 갖는 방법을 되돌아본다.

복음을 나누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가졌던 좋은 경험이나 리아호나에 나오는 관련된 이야기를 말해 준다.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받는 축복들에 대한 간증을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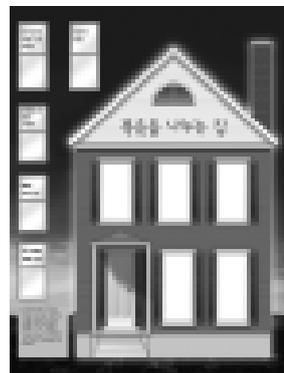
3. 노래 발표: “주 섬기라”(어린이 노래책 94~95쪽; 또는 찬송가 145장) 이 노래를 한 번 허밍하거나 연주한다. 어린이들에게 이 곡이 무엇인지 알면 손을 들라고

말한다. 이 노래가 그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질문한다. 그들에게 이 노래의 제목을 말해 주고, 복음 그림 패킷 612(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선교사들)를 보여준다. 이 노래는 주님을 섬기도록 부름 받은 선교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임을 설명한다.

후렴구를 먼저 가르친다. 마지막 소절인 “면류관 향해 마지막까지 주님 섬기며”를 부른다. 어린이들에게 “섬기며”라는 말을 들으면 손을 들라고 한다. 어린이들에게 그 소절을 불러 주고, 그들이 누구를 섬길 것인지 잘 들어 보라고 한다. 초등학교를 세 그룹으로 나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면류관 향해”를, 두 번째 그룹에게는 “마지막까지”를, 세 번째 그룹에게는 “주님 섬기며”를 각각 부르게 한다. 이 소절을 여러 번 불러서 각 그룹이 세 개의 소절을 모두 부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이 노래 1, 2절을 가르칠 때, 필요하다면, 어린이들에게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준다.

주님을 섬기도록 부름 받은 선교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교 사업을 한 간략한 예를 나눈다.(예를 들면, 바울, 암몬, 새뮤얼 스미스, 총관리 역원, 지역 교회 지도자, 또는 여러분 가족 중 한 명)



행함으로 배움

하 나님 아버지는 배우고 경험을 얻으라고 우리를 지상에 보내셨다. 우리가 배워야 할 많은 것들은 오직 행함으로써 배울 수 있다. 그것에 대해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예를 들어, 사랑에 관해 읽는 것만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없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자 한다면 그를 위해 봉사해야만 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인도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주셨다. 직분이나 부름을 통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때, 우리는 종종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게 되며 한때 어려웠던 임무들이 행하기 쉬워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다.

행함으로 배우는 것은 우리가 받은 정규 교육의 양과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예를 들어, 한 여인이 저명한 과학자 루이 아가시 박사에게 자신은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다고 불평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과 여동생이 함께 하숙을 쳤으며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가 그녀에게 어떤 일을 했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감자 껍질을 벗기고 양파를 썰었어요.”

그는 그런 흥미롭지만 소박한 일을 할 때 어디에 앉아서 일을 하지요?”하고 물었다.

“부엌 계단 제일 아래 층계에서요.”

“밭은 어디에 놓지요?”



여섯 가지
우(6B)

유능해지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두뇌와 손을 훈련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두뇌와 솜씨가 숙련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야를 선택했든, 그것이 냉장고를 수리하는 기술이든 유능한 외과 의사의 일이든 간에, 자신을 숙련시켜야 합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받은 훈련으로 인해 여러분은 교회에 영예를 가져올 것이며 자신 또한 크게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유약 벽돌 위에요.”

“유약 벽돌이 뭐죠?”

“모르겠는데요.”

그가 물었다. “몇 년 동안이나 거기 앉아 일했죠?”

“15년 동안이요.”

“부인, 여기 제 명함이 있습니다.” 아가시 박사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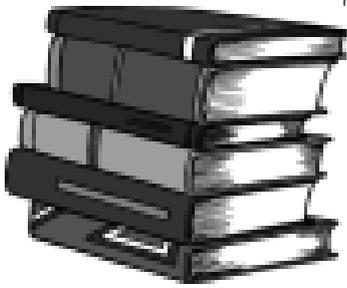
“유약 벽돌의 특성에 관한 편지를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녀는 그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사전에서 “벽돌”을 찾아 보았지만 그 정의가 저명한 과학자에게 보내기에는 너무나 간단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백과사전을 찾아보았다. 벽돌에 관해 읽다가 이해할 수 없는 낱말들이 나왔다.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보았다.

자신이 배우고 있는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된 그녀는 벽돌 공장을 방문하였다. 공부를 마친 그녀는 자리에 앉아 아가시 박사에게 유약 벽돌에 관한 36쪽에 달하는 편지를 썼다.

답장에서 아가시 박사는 그녀의 편지 중 사소한 몇 군데를 고쳐 책으로 출판했다고 알리며 250달러를 보내왔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물었다. “벽돌 밑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살펴보니 벽돌 밑에는 개미가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개미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800~2500여종의 개미가 있음을 발견했다. 그녀는 다양한 개미의 종류 및 개미의 생태와



서식처에 매혹되었다. 방대한 독서와 세심한 연구 끝에 그녀는 이 주제에 관한 360쪽에 달하는 편지를 아가시 박사에게 보냈다. 그는 이 편지도 책으로 출판했고 그녀에게 더 많은 돈을 보냈다.

그녀는 받은 돈으로 꿈에 그리던 세계 일주를 떠났다.

(메리온 디 행크스, 자신의 선물[1974년에서 발췌, 151~153쪽])

리차드 엘 에반스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다른 사람에게 쉽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 그가 얻으려 하고 대가를 치러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는 한 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 원리는 공부, 재능 계발, 지식 습득, 기술 익히기 및 인생의 모든 교훈을 배우는 일에 적용됩니다.”

(리차드 에반스 인용집[1971년], 74쪽)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다음 호 복지 기사인 “삶을 위한 신체 단련”과 관련된 여러분의 사연을 아래 주소로 2008년 7월 10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건강의 중요성과 신체를 단련함으로써 얻는 축복에 행복에 관한 내용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속 와드/지부에 대한 정보와 사진도 함께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우편: 서울시 성동우체국 사서함 22호 한국 관리
본부 리아호나 담당자 앞(우편 번호
133-600)

팩스: 02-2235-1395

이메일: JeonGW@ldschurch.org(전건우)

문의 전화: 02-2232-1441(내선 번호 564)



애독자 사연

지난 2007년 3월호 리아호나 지역소식에 실린 청주 스테이크 운애란 자매의 기사는 ‘행함으로 배움’의 좋은 사례를 보여준다. 현재 ‘가족폭력상담소’와 ‘결혼 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녀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불혹’을 몇 달 앞 둔 서른아홉살의 어느 날,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된다.

‘공부를 하자! 지금까지는 신권 지도자의 아내로서 교회 안에서만 봉사했지만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자!’ 결코 쉽지 않은 결심이었지만 운애란 자매는 실행해 옮겼다. 가족 치료 대학원에 입학했고 상담원 공부도 했다. 가족 치료사, 사회 복지사, 미술 치료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의사소통 강사로도 일했다. 그 모든 것을 39살 이후에 이뤘다. 운 자매의 새로운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의 밤”

매 주 월요일 저녁,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 가정에서는 가정의 밤이 진행된다. 교회를 대표하는 특징 중 하나인 가정의 밤은 비단 가정을 가진 가족 회원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혼자 교회 나오든 청년 독신 성인이나 신회원, 그리고 구도자들도 교회나 집에서 함께 모여 자신들만의 뜻 깊은 가정의 밤을 하고 있다. 마산 스테이크 내의 진해 와드와 풍호 와드, 그리고 창원 와드 청년 독신 성인들도 바로 그런 합동 가정의 밤을 매주 가진다. 가정의 밤을 하기 어려운 청년 독신 성인들, 청소년들, 신회원들, 그리고 교회를 처음 알게 된 구도자가 참석 대상이다. 그들은 선교사들과 함께 모여 찬송을 부르고, 간증을 나누고, 즐거운 활동을 하며 월요일 저녁을 유익하게 보낸다.



6월의 첫째 월요일이었던 지난 2일 저녁에도 합동 가정의 밤은 변함없이 진행되었다. 삼삼오오 모인 회원들은 함께 샌드위치를 만들고, 교회 DVD인 'Testaments'를 보면서 우정을 나눴다. 침례 받은 지 불과 일주일 밖에 되지 않은 창원 와드의 박희제 자매도 이날 가정의 밤에 참석했다. 그녀는 DVD를 보고 난 뒤, “영화에 나오는 병 고침을 받는 장면을 보며, 정말로 예수님의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기쁠까, 나도 예수님을 보면 얼마나 기쁠까 생각했다.”며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같은 신회원인 정유진 자매는 “교회가 딱딱하고 어려운 복음만을 나누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정의 밤을 통해 교회가 즐거운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가정의 밤에 참석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가정의 밤에 참여한 청년 독신 성인들과 신회원, 그리고 구도자들은 공과 시간에도 시종일관 진지하게 참여했다. 정말로 가정집을 옮겨 놓은 듯 몇몇은 바닥에 앉기도 하고, 또 몇몇은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기도 하는 등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였지만 공과에 집중하는 모습만은 그 어떤 모임보다 진지했다. 특히 공과 내용 중에 가정을 강화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 등이 언급될

때면 참석한 회원들의 눈은 더욱 빛났다.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맞장구를 치기도 하고, 공과 내용을 받아 적으며 성신의 느낌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은 장차 자신이 꾸려갈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의 행복한 가정의 밤을 그려보는 듯했다. “가정의 밤에 참석하여 공과를 나누고 함께 활동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 회원들의 모습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행복하고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는 김여량 자매의 말처럼 가정의 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회원들의 얼굴에는 행복에 겨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느덧 5개월째에 접어든 마산 스테이크 합동 가정의 밤. 그동안 참석자가 적고, 서로의 시간이 맞지 않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매주 영적인 공과와 재미있고 유익한 활동을 준비하는 선교사들과 독신 대표들의 노력 덕분에 이제는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 잘 준비된 공과는 합동 가정의 밤에 참석한 회원 모두의 영성을 고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은 즐거움을 배가 시킨다. 때로는 함께 볼링을 치기도 하고, 스피드 퀴즈를 풀기도 하고, 가까운 공원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등 늘 새롭고 다채로운 가정의 밤을 위해 선교사들과 청년 독신 성인들은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합동 가정의 밤은 청년 독신 성인들과 선교사들, 그리고 신회원과 구도자들이 모두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마산 스테이크 회원들은 입을 모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소득은 참석한 회원 모두의 마음속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다. 비록 가족과 함께 둘러앉은 가정의 밤은 아니지만 서로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증진하고, 영과 간증을 고취시킨다는 점에서 마산 스테이크 합동 가정의 밤은 매주 월요일 밤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또 하나의 훌륭한 가치이다. ■
(김민정 기자)

한국 교회의 봉사 활동

봉사라는 말속에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이라는 뜻이 들어있다. 봉사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쳤던 주님의 박애정신이 바탕이 된 말이다. 그러하기에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봉사를 강조한다. 봉사의 형태도 점점 변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던 봉사가 사회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몇 년 간 휠체어 기증, 헌혈 행사 등의 봉사를 계속해 왔던 교회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좀 더 다양하고 활발한 봉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이다. 일견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봉사에서부터 사회와 연계한 봉사까지, 서울 북 스테이크 청년의 수기와 서울 동지구 복지 위원회의 봉사 사례를 통해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한다.



할머니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서울 북 스테이크 청년과 고문들

서울 북 스테이크 청년들의 조금 특별한 야영

“우리는 봉사합니다”

토요일이면 청소년들은 무척 바쁩니다. 모자란 잠도 자고, 친구도 만나야 하고, 텔레비전 보이며 영화 보기 등 공부하느라 놓쳤던 여러 활동을 해야 하니까요. 더욱이 그 토요일이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 흔히 말하는 ‘놀토’라면 더 그렇습니다.

지난 5월 24일도 ‘놀토’였습니다. 아나나 다를까 전날인 금요일부터 놀러 갈 계획을 세우는 친구도 있었고, 하루 종일

잠이나 자야겠다며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북 스테이크 청년들은 늦잠도 안 자고, 친구들과 놀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 일찍부터 차에 올라 충북 음성에 있는 ‘홍복 양로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서울 북 스테이크 청년 캠프 때문이었습니다. 청년 캠프를 하는데 왜 양로원으로 가느냐고요? 청년들도 처음에는 똑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렇지만 “야외에서 1박을 하는 캠프는 아니지만 청년들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는 청년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는 흔쾌히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홍복 양로원’은 지난 동계 청소년 때 처음 방문한 후에 꼭 다시 오겠다고 어르신들과 약속 했던 곳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마음도 설레었습니다.

‘홍복 양로원’에는 50여명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십니다. 다들 편찮으시고 외로우신 분들입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도 그분들의 주름 하나하나에 새겨진 고통과 외로움의 그늘 때문에 청소년들은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두 번째이지만 양로원으로 들어서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색해하는 친구도 있었고, 긴장한 듯 땅만 내려다보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런 청년들을 오히려 더 따뜻하게 맞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일을 기억하시며 안부를 묻는 분도 계셨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은 어느새 편안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의 주글주글한 손을 잡으며 곧잘 재미있는 이야기를 건네는 친구도 하나 둘 늘어났습니다. 따뜻했던 그날의 햇살처럼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안마를 하고 있는 서울 북 스테이크 청년들

무렵, 청년들은 준비해 간 합창을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들려드렸습니다. '고향의 봄'과 '주님은 이 몸을 사랑해요'를 부르는 동안 어르신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에는 원당 와드의 청년 친구들이 리코더 연주를 했습니다. 리코더의 까만 원통을 통과한 소리가 아름답게 어우러지며 양로원 안을 가득 채웠을 때, 청년들의 마음과 어르신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음악 순서를 마치고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저희들이 함께 둘러앉아 물감 붙여 그림 그리기를 했습니다. 도화지 위에다가 물감을 붙 때마다 색색으로 그려지는 그림들은 마치 양로원 전체에 퍼지는 미소처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때쯤 청년들의 마음속에는 사소한 몸짓에도 기뻐하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위해 조금 더 봉사하자는 마음이 가득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안마를 해드리고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추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청년들은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꼭 잡은 두 손을 오래오래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떠나는 청년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청년들은 갈 때와 달리 내내 조용했습니다. 마음속에 차오르는 큰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조용히 '홍북 양로원'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서울 북 스테이크 청년들은 세상의 모든 청소년과 똑같습니다. 가끔 부모님 말씀을 어기기도 하고, 공부가 싫어 울기도 하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나눴을 때, 더 커진다는 사실도 청년들은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이주 노동자를 위한 물품 전달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비누, 빗, 내의, 컵, 수건, 화장지, 치약, 가방, 슬리퍼, 손톱 깎이, 그리고 양말. 집안 어디에나 있는 흔한 물건들이다. 하지만 이 물건들조차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외국인 노동자라고 부르는 이주 노동자가 그들이다. 대다수의 이주 노동자는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이어나간다. 그 외중에 사고나 병으로 입원하게 되면 병원비는 물론이고 입원 시에 필요한 물품조차 마련할 수 없어 고생을 한다. 서울 선교부 산하의 5개 스테이크로 구성된 서울 동지구 복지 위원회가 이주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된 것은 2007년 말이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며 복지 현안을 점검하던 중에 서울 적십자 병원으로부터 도움을 요청 받은 것이다. 입원 생활을 하는 동안 꼭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지원해 줄 수 없겠냐는 것이 적십자 병원의 요청. 그 후, 서울 동지구 복지 위원회는 바빠졌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고, 물품 목록을 만들고, 그 목록대로 물건을 구입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생각 이상으로 복잡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 계획을 했던 작년 말부터 6개월여가 흐른 지난 5월 26일, 서울 동지구 복지 위원회의 준비가 결실을 맺는 아주 중요한 모임이 있었다. 동대문 와드에서 진행된 '물품 포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후부터 진행된 모임에는 서울 동지구 복지 위원회의



물품 포장을 하는 자매들은 한순간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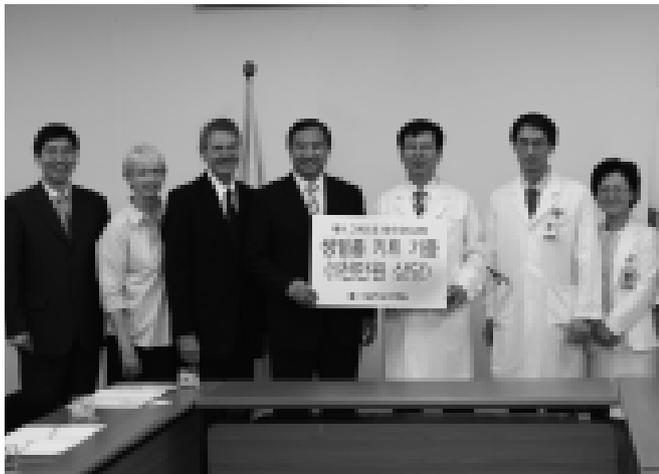
위원장인
이우영 서울 동
스테이크 회장의
인도로 각 스테이크의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함께 모였다.

길게 늘어선 탁자 위에는 세면도구와 가방,
슬리퍼 등 사소하지만 꼭 필요한 여러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자매들은 줄을 서서 물건을 포장해 나갔다.
남성용과 여성용을 합해 마흔네 개의 꾸러미를 포장하는 일은,
십여 가지가 넘는 물건을 한데 모으는 만큼 상당한 시간과
손길을 요했다. 하지만 자매들은 시종일관 즐겁게 웃으며 하나
둘 포장을 완성해 나갔다. 물건을 구입하는 일에 앞장섰던 서울
동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인 한숙자 자매는 “(물건 구입을
위해) 병원을 돌아다니며 알아보기도 했다.”고 말하며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의 소중한 돈이 모인 인도주의적 기금이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한편, 포장된 물품을 전달하는 ‘물품 기증식’은 지난 6월

4일 서울 적십자 병원에서 있었다. 이날 기증식은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최윤환 장로와 공보 선교사인
젠슨 장로 부부, 그리고 서울 적십자 병원의 김한선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증서와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김한선 원장은 “적십자 병원에는 현재 동남아시아나 조선족,
그리고 몽골 등에서 온 40명 정도의 이주 노동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입원할 때 필요한 물품들을 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젠슨 장로는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도 있는 기회를 뿌리 치고 적십자 병원에서 봉사하겠다는
의료진 여러분의 결심을 존경합니다.”라고 말하며 “(봉사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따뜻한 당부를
남겼다. 최윤환 장로는 간략하게 교회를 소개하며 “교회는 여러
종교 활동도 하지만 봉사활동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한국에서는 적십자와 연계해 휠체어 기증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주 노동자라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기꺼이 도움을 베풀고 싶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증식은 입원한 이주 노동자를 직접 만나 물건을
전달하면서 끝을 맺었다. 최윤환 장로는 물건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빨리 완쾌하시기를 바랍니다.”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작은 가방 하나에 들어간 십여 가지의
소소하지만 귀중한 물건들을 전해 받은 이주 노동자들의
얼굴에는 가방보다도 큰 웃음이 걸렸다. 그 웃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봉사활동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된다. ■



서울 적십자 병원에서 기증식. 좌측부터 박승호 형제, 젠슨 자매, 젠슨 장로,
최윤환 장로, 김한선 원장, 서상렬 의료 부원장, 김미주 간호과장



입원한 이주 노동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최윤환 장로



지역 단신

주: 지역 단신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더 많은 정보는 웹사이트 www.lds.or.kr의 회원과 방문자를 위한 소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송평중 부산 선교부 회장 내외 귀환 송별 모임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



합 창단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청중의 마음이 하나 되어 송평중 부산 선교부회장과 양계영 자매의 송별 모임이 열렸다. 6월의 첫 안식일이었던 1일 오후, 6월로 임기를 마치는 선교부 회장 내외를 위해 부산스태이크 회원들은 수정 와드에 모여 감사를 표했다. 새로운 회원들의 간증은 선교 사업의 보람을 느끼게 했고 선교부 회장 내외의 지난 3년간의 모습을 담은 슬라이드는 선교 사업에 대한 그들의 열정과 헌신을 담고 있었다. 양계영

자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발은 바로 선교사의 낡은 신발”이라는 것과 몰몬경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전했고, 송평중 회장은 선교 사업 에피소드를 통해 성도들의 웃음을 자아냈으며 복음의 참됨에 대한 간증과 선교부 지역 회원들에 대한 사랑을 표했다. 또한 부산 선교부 지역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조금 더 열심히 경전을 읽고, 조금 더 노력하여 계속해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자”는 권고의 말씀을 남겼다. 모임이 끝난 후에도 회원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고, 송평중 회장은 그들에게 친필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



광주 스테이크 <정유진 기자>

스테이크 대회 - 지난 2008년 5월 24일과 25일 양일간 광주 스테이크 대회가 열렸다. 이번 스테이크 대회에는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하고 있는 이용환 장로와 니시하라 사토시 장로가 함께하였다. 특별히 스테이크 대회 말씀들을 통해 광주 스테이크 성도들은 다시 한 번 올해의 스테이크 목표를 상기하며 그 목표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들을 되짚어보게 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족의 사랑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보게 되는 5월이 다가기 전, 광주의 모든 성도들은 스테이크 대회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축복으로 인식한 채 5월의 마지막 안식일을 마무리하였다.

마산 스테이크 <김민정 기자>

체육 대회 - 지난 2008년 5월 12일, 화창한 봄날씨아래 마산 스테이크 회원들이 체육 대회를 위해 '진동 삼진중학교' 운동장에 모였다. 김충석 마산



스테이크 회장의 체육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모든 스테이크 회원들은 열심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홍팀과 백팀으로 나누어 형제들은 축구 경기를 하고 자매들은 피구를 하고 모두 응원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그 외에도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하는 오리걸음달리기와 풍선 들고 릴레이 등의 다채로운 활동이 있었다.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장호진 기자>

체육 대회 - 지난 2008년 5월 12일 오전 10시, 동대문 스테이크 체육 대회가 성일 중학교에서 열렸다. 체육 대회라는 이름 아래 시온의 동대문 스테이크 회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우정을 나누고 그동안 꿈틀거리고 있던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 영등 스테이크 상조 교육 모임 <이희정 기자>

상조 교육모임 - 지난 2008년 5월 18일, 서울 영등 스테이크 송파 와드에서 영등 스테이크 상호부조회가 주관한 장례절차에 관한 상조 교육모임이 100여 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있었다. 조규영 형제를 강사로 초빙한 이날 모임에서는 장례의식 준비와 수의 입히는 절차, 입관 및 헌납기도 절차 등 장례의식 전반에 관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서울 강서 스테이크 <김연학 기자>

경로 잔치 - 지난 2008년 5월 14일 서울 강서 스테이크에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스테이크 내에 있는 약 40여명의 어른을 위한 경로 잔치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스테이크 상호부조회의 점심식사와 허승미 자매의 창,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 수상자 정선화 선생의 가야금 병창, 이유나 자매의 가야금 연주, 그리고 개봉 와드 이종성 자매와 이난효 자매, 부천 와드 김재학 형제 등의 멋진 공연이 있었다.

순천 지방부 <조연화 기자>

초등학교 활동의 날 - 지난 2008년 5월 10일, 순천 지방부 내의 30여명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백운산 야영장에서 부모와 초등학교 회장단과 함께 즐거운 활동의 날 모임을 가졌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활동하며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성인 회원과 초등학교 어린이 모두가 흠뻑 우정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288기 7명



강병석 장로
안양 스테이크
안양 와드
대전 선교부



안순영 자매
인천 스테이크
계산 와드
대전 선교부



김윤하 자매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중랑 와드
부산 선교부



임동선 장로
수원 스테이크
신봉 와드
서울 서 선교부



박녹형 장로
수원 스테이크
신봉 와드
부산 선교부



조현준 장로
전주 스테이크
전주 와드
서울 서 선교부



박지연 자매
서울 동 스테이크
장위 와드
부산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부산 스테이크 수정 와드 감독: 류승동(전임: 정재권)	안양 스테이크 산본 와드 감독: 김정일(전임: 강건욱)
서울 강서 스테이크 신월 와드 감독: 하현수(전임: 정해원)	전주 스테이크 남원 지부 회장: 황인기(전임: 황창규)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동대문 와드 감독: 김기연(전임: 박창순)	

바로 잡습니다

지난 6월호 리아호나 교회소식 부분의 4쪽에 편집상의 실수로 글자의 일부가 보이지 않는 오류가 있어 바로 잡습니다. 올바르게 편집된 '정오표'를 이번 호 리아호나에 동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